

GYEONGNAM MECENAT

기 업 과 문 화 예 술 의 아 름 다 운 동 행



- 'M' in Business |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 'M' in Culture | 스토리가 있는 문화
- 'M' together | 결연식 스케치

짚레

최 석 균

장미같이 몸 다는 날
물오른 맨살을 벗기면
긴 갈증을 적실 수 있을까

바람 부는 오월의 언덕
날리는 보안 향기를 들이켜면
오랜 허기를 채울 수 있을까

허끝이 따끔토록
코끝이 알알토록
새순에 마주 마음 비비면
물 한 모금 건넌 듯 차오르는 얼굴

물이기 같은 기억을 밟고
뼈꾸기 감도는 산자락을 서성이면
물같이 치솟는 그리움 만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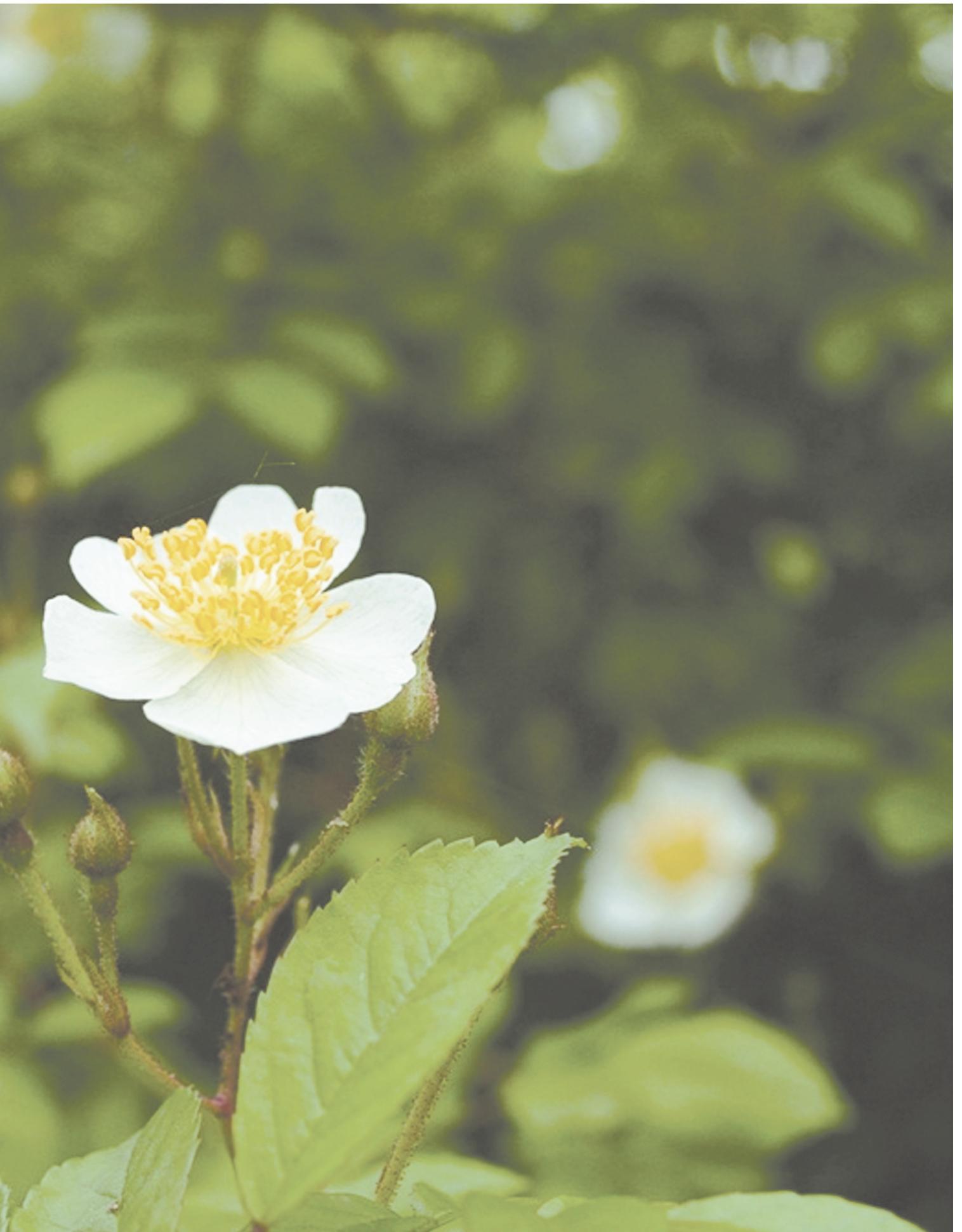
시인 **최석균**

경남 합천 출생

2004년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활동 시작

시집 『배롱나무 근처』 창원경일여자고등학교 재직





모든 것이 기대 이상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가온 새로운 E-Class
The new E 200 CGI BlueEFFICIENCY



125! years of innovation



Mercedes-Benz
The best or noth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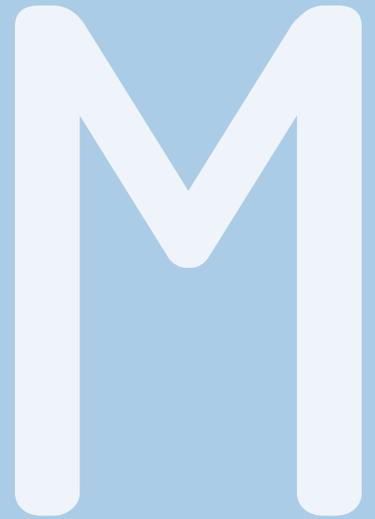
최신형 3D 터치 내비게이션과 타는 이를 최우선으로 하는 첨단 안전 시스템, 최상의 주행성능을 갖춘 친환경 엔진까지. 이 아름다운 차를 가지는데 58,500,000원이라는 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www.Mercedes-Benz.co.kr

메르세데스-벤츠 경남공식딜러 전 시 장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28-9 / (055) 296-1004
경남자동차판매(주) 서비스센터 :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포동1가 28-9 / (055) 296-1002
 진주서비스센터 : 진주시 호탄동 609-9번지 / (055) 743-1006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 200 CGI BlueEFFICIENCY 1,796cc, 1,665kg, 자동5단, 10.8km/ℓ, 3등급, CO₂ 배출량 217g/km • E 220 CDI BlueEFFICIENCY 2,143cc, 1,660kg, 자동5단, 15.1km/ℓ, 1등급, CO₂ 배출량 178g/km
 • E 300 ELEGANCE / AVANTGARDE 3,498cc, 1,775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4g/km • E 350 AVANTGARDE 3,498cc, 1,815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4g/km • E 350 4MATIC AVANTGARDE 3,498cc, 1,885kg, 자동7단, 8.5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76g/km • E 63 AMG 6,208cc, 1,940kg, AMG SPEEDSHIFT 7단 멀티클러치, 6.5km/ℓ, 5등급, CO₂ 배출량 360g/km • E 350 Coupé 3,498cc, 1,670kg, 자동7단, 9.2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55g/km • E 350 Cabriolet 3,498cc, 1,790kg, 자동7단, 9.0km/ℓ, 4등급, CO₂ 배출량 261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써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CONTENTS

- 02 휴(休)
짚레 _ 최석균
- 06 회장 인터뷰
신임회장 _ 박영빈
- 08 메세나 사업소개

'M' in Business

- 10 예술동아리 탐방
성동조선해양 락밴드 '벌크헤드'
- 12 기업과 예술의 만남 그 아름다운 동행
경남은행 _ 지역민과 '올지마 톤즈'로 문화소통
STX조선해양 _ 영화로 만나는 클래식 감동
STX엔진 _ 종합기술원에 피어오르는 예술의 향기
경남자동차판매 _ 옷칠회화와 벤츠가 만나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 _ 박재삼 문학과 예술공감
우수AMS _ 낭송문학페스티벌 '시를 낭송하는 사회'
신택 _ 메세나로 더욱 빛난 준공기념식
에코시스템 _ 경남프리마양상들의 아름다운 하모니
- 26 예술과 여행
회원사 가족과 함께 떠난 통영 여행



mecenat

메세나

문화예술의 날개가 되다!

'메세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으로 고대 로마제국을 문화강국으로 이끌었던 재상 마에케나스(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대한민국 유일의 지역 메세나협의회로서, 경남의 기업들과 문화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으로 행복한 문화경남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M' in Culture

- 32 예술과 삶
박생광
- 36 스토리가 있는 문화
경남영화의 새로운 혁명을 꿈꾸다 _ 경남영화협회
아주 특별한 만남 _ 난리굿패 어처구니
- 40 미술, 쉽게 즐기기
현대미술 쉽게 읽기 _ 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장정렬



'M' Together

- 44 신규결연팀 소개 / 결연식 스케치
- 48 예술의 희망이야기
즐거운 나눔티켓 _ 밀양연극촌
- 50 문화파발마
문화캘린더 / 공연 프리뷰
- 54 전시 소개 / 독자의 생각



| 발행인 박영빈
| 편집인 박덕운
| 발행일 2011. 06. 15.

| 발행처 경남메세나협의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01-5 경남은행 3층
| www.gnmecenat.or.kr
| Tel 055-285-5611 | Fax 055-285-5610

| 기획·디자인
오션커뮤니케이션즈 Tel 055-296-4995

| 인쇄 (주)화성 Tel 055-295-4995

경남메세나협의회
선도기업으로서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경남은행장 **박영빈**



어렵고 힘들다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기업문화와 분위기를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Q. 지난 1월 경남 메세나협의회 회장에 취임하고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을 지낸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는 과거 수석부회장으로서 재직시 경남메세나를 창설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경남메세나가 명실공히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메세나단체로서 성장한 중요한 시점에 회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메세나협의회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남 문화예술 발전과 지역 내 기업들 사이에서 문화경영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경남은행이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를 듯 한데요?

경남은행은 올해 창립 41주년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당행에 과거에도 재직한 바 있지만,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11대 은행장으로 취임하여 다시 경은 가족과 함께하니 감회도 남다르지만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경은 가족을 위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창립 41주년이 새로운 40년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서 '제2의 창업'에 버금가는 변화와 혁신을 이뤄 전 직원은 물론 지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지역은행, 우리나라 1등 지방은행으로 성장하는데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인바 여기에 또한 메세나 활동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Q. 경남메세나협의회는 지역 기업들에게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을 통한 창조경영이란 어떤 것일까요?

기업경영활동도 결국은 사람의 문제입니다. 문화예술의 힘이란 바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창한 경영 구호나 경제적인 목표보다도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마인드와 유연한 사고의 인적인 기업문화가 형성된다면 직원들의 의욕과 사기의 양양은 물론 기업이 목표 하는바에 보다 자연스럽고 바람직하게 접근해 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기업활동을 통하여 기업과 사람과 문화가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곧 창조경영이고 문화경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Q. 신임 회장님을 취임하면서 기존의 사회공헌사업을 탈피해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이란, 기업의 일반적이고 형식적인 사회공헌활동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업의 사회공헌 지출규모만큼이나 직간접적인 활동 비중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개개인의 사회공헌활동 편차는 상당합니다. 어려운 이웃과의 사랑 나눔에 적극적인 분이 있는가 하면 그에 못지 않게 인색한 분들도 적잖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에 사회공헌 사업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개인의 기부, 봉사, 구호활동 등의 사회적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기업과 개인이 다함께 나눔의 정신으로 참여하는 바람직한 공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4월 창원에서 4,000여명, 6월 울산에서 2,500여명이 관람하여 성황리에 실시한 지역민을 위한 영화 "울지마 톤즈" 무료 관람행사는 상생을 위한 나눔 메시지를 개인에게 전달함으로써, 함께 소통하고 이웃사랑 실천을 이끌어낸 사회공헌활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참여형 사회공헌사업으로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그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경남메세나협의회가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문화예술 지원단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은행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경남메세나협의회 선도기업으로서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기업과 문화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이 지역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메세나협의회 활동에 대한 기업 및 지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경 남 메 세 나 협 의 회 사 업 소 개

기업과 예술의
만남사업
(Arts & Business)

- ▶ 기업과 예술단체가 1:1 결연을 맺고, 사회공헌, 마케팅, 경영전략 차원에서 상호 협력하여 기업은 경쟁력을 제고하고, 예술단체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보장받음으로써 서로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 ▶ 기업은 예술단체에 자금, 사내 공간, 티켓 구매, 직원 자원봉사 등을 지원
- ▶ 예술단체는 기업에 사내공연 및 직원 예술교육, 공연초대, 기업 홍보 등 기업의 창조적 문화경영 활동 지원

○ 경남중소기업 예술자원 매칭펀드

- 중소기업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비례하여 경상남도에서 해당 예술단체에 추가로 지원하는 MATCHING-GRANT 프로그램
- 절반의 투자로 2배의 효과를 얻다!
- 2011년 경상남도지원금 총액 : 5억원

회원사협력사업

- ▶ 찾아가는 공연 : 기업 행사 시 직원과 고객을 위해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해드립니다.
- ▶ 예술동아리 지원 : 사내 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합니다.
- ▶ 미술작품 대여 : 도내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대여하여 사내에 전시해드립니다.
- ▶ 예술기행 : 회원사 직원 및 가족에게 지역 문화예술 체험 기회를 제공해드립니다.
- ▶ 문화공감 : 회원사 대표 및 담당 임원에게 도내문화예술회관 공연관람 티켓을 제공해드립니다.
- ▶ 지정기탁 : 기업의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각종 지원금을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해드립니다.



동영예술기행
지역문화예술을 체험하세요!



문화 나눔사업

- ▶ 찾아가는 메세나 :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 ▶ 즐거운 나눔 티켓 : 도내 복지시설 어린이에게 즐겁고 유익한 문화예술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을 돕고 있습니다.

연구 및
홍보사업

- ▶ '경남메세나' 발간 : 도내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홍보하고, 지역 문화소식을 알리고자 연 3회 발간하고 있습니다.
- ▶ 문화경영세미나 및 경남메세나포럼 개최 : 도내 기업 실무자를 대상으로 문화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영 활용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문화경영 도서 보급 : 문화경영 관련 우수 도서를 회원사에 배부해드립니다.
- ▶ 예술경영 아카데미, 결연예술단체 역량강화 워크샵 : 도내 예술단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하여 예술경영 능력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돕습니다.

경남메세나대회

- ▶ 경남메세나대회 개최 : 메세나 활동으로 아름다운 사회공헌을 실천한 기업과 문화예술계가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 ▶ 경남메세나상 시행 : 경제와 문화예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 기업과 개인 등을 발굴하여 공로를 시상합니다.



Mecenat in Business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문화 예술 유적을 돌아보는
기업과 예술의 활발한 교류와
회원사 예술동아리의 활동이 담겨있는
생생한 현장을 찾아갑니다.

성동조선해양 rock band bulkhead

전설을 꿈꾸는 락밴드 '벌크헤드'

글·사진_ 김은아

배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격벽'이라는 뜻의 '벌크헤드'
음악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조선소에서 어렵사리 결성되어 전설의 락밴드
'라디오헤드'를 넘보는 그들을 찾아가 보자.

3월의 어느 저녁, 푸르스름한 빛으로 물든 통영 시내는 유난히 차들로 붐빈다. 바야흐로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과 함께 음악의
향연이 펼쳐지는 시즌. 많은 이들이 바다 내음 가득한 통영으로 음악 여행을 즐기러 왔다. '프린지'가 열리는 도천테마파크 야외
공연장에 도착하니 어느 락밴드가 열창 중이다. 지난 겨울이 남긴 차가운 바람에도 많은 관객들이 눈을 반짝이며 공연을 관
람하고 있었다.





윤이상 기념관에 마련된 작은 공간에서 성동조선해양의 직장인 밴드 '벌크헤드'를 만났다.

늘어뜨린 긴 머리, 가죽 자켓에 선글라스를 상상했지만 이들은 어느 평범한 청년들처럼 캐주얼한 차림에 긴장한 듯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나타났다. 귀여운 외모와 달리 헤비메탈을 좋아하는 드러머이자 리더인 조인휘 대리, 박신양을 닮은 외모로 공연 때마다 수많은 남성팬들을 설레게 하는 쇼맨십의 달인 보컬 류상원 주임, 많은 여성팬을 보유하고 있는 패션종결자 베이시스트 최규창 주임, 팬더를 닮은 외모에 출중한 작곡 실력을 갖춘 기타리스트 전덕준 주임, 마지막으로 키보드로 팀에 합류했지만 어느 순간 매니저로 강등되어 벌크헤드의 살림을 담당하는 매니저 서혜원 주임. 전덕준 주임과는 음악으로 맺어진 부부사이라고.^^

먼저 동아리 결성 계기를 물었다.

타지에서 온 다섯 멤버는 회사-기숙사를 반복하는 단조로운 생활로 인해 무기력감에 빠져있던 중, 사내 밴드 모집 공고를 보고 학창시절 열정적으로 밴드 활동을 했던 경험을 살려 밴드 결성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한다. 역사에 기록하게 기록된 벌크헤드의 창단 일자는 2009년 1월 1일. 창단 이후 거제, 창원, 통영 등지에서 약 12회 정도의 공연을 했다. 기억에 남는 공연은 회사 신년회 때 회장님 및 임원들 앞에서 '돌아와요 부산갈매기'(돌아와요 부산항에 +부산갈매기)를 '덜덜덜' 떨면서 연주했을 때라고. 각자 음악취향이 다르지만 공연에서만은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추구한다. 멤버 모두들 경험했던 관객들의 냉담한 반응이 무서웠던 이유로, 관객의 입장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곡들로만 연주를 하고 있다.

프린지에 참가하게 된 계기를 물어보자.

"창단하고 약 1년간 공연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 하이어나처럼 공연이란 먹이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다 '프린지'라는 고퀄리티의 먹이...아니 무대가 매년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어 2010년부터 참가하게 되었어요. 프린지의 가장 큰 매력은 우리 같은 아마추어 밴드나, 크라이닝, 더더밴드 같은 프로 밴드 모두에게 동일한 무대에서 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누구나 자신들의 음악에 자신 있다면 참가할 수 있다는 데 있죠. 프린지 공연 이후 공연 기회가 자주 주어지고 있어요. 아마 벌크헤드의 역사는 프린지 공연 전과 후로(마치 구약, 신약성경) 나누지 않을까 생각해요. 혹시나 벌크헤드가 유명해져서 해외로 진출하더라도 매년 프린지는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들은 밴드 활동을 하면서부터 인생을 알차게 살고 있다는 뿌듯함과 자신감이 생겼다고 입 모아 말한다. 연습이 있는 매 주 수요일 저녁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다고.

마지막으로 직장인 밴드의 장점은 무엇이 있을지 물었다.

"직장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즐겁게 동호회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자의 분야에서 제 할 일을 다 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 취미생활도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긍정적 에너지를 다시 자신의 직무에 쏟아 붓는다면 그만큼 큰 시너지 효과는 없다고 생각해요."

자, 이제 그들이 날아오를 차례다.

'Isn't she lovely'로 달콤한 첫 무대를 선보인 후, 너바나의 'Come as you are', 알 켈리의 'I believe I can fly'를 부르며 '락 스피릿'으로 무대를 뜨겁게 달구어갔다. 곡이 끝날 때마다 류상원 주임이 관객과 눈을 맞추며 친근하게 말은 건넨다. '아, 오늘 저희 인터뷰하러 오신 분도 저기 앉아 주세요'라며, 열심히 셔터를 눌러대던 나를 능청스럽게 가리키는데, 그들의 무대매너는 이미 프로페셔널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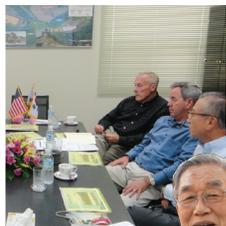
박상철의 '무조건'을 부르면서 분위기는 절정에 달했다. 난데없는 트로트의 등장엔 관객은 한 번 놀라고, 락의 웃을 입혀 너무나도 맛깔스럽게 부르는 모습에 또 한 번 놀랐다. 락 공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들도, 교복 입은 학생들도, 엄마 품에 있던 애기들도 신나게 박수를 치며 그들이 만들어내는 열기에 동화되어갔다. 한껏 feel 받은 멤버들은 생수를 머리에 끼었으며 락커다운 추임새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조용필의 노래를 끝으로 벌크헤드의 공연은 끝났다. 조금은 심드렁해 있다가 어느 순간부터 아이돌 팬 마냥 환호를 지르던 여고생들은 아쉬움에 가득해보인다. 그들을 보니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관객과 호흡하며 음악으로 소통하는 '프린지'의 매력을 알 것 같았다. 나 또한 잊지 못할 특별한 경험이었으니.

무대 뒤, 아직도 흥분 속에서 숨을 고르는 있던 그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공연장을 떠났다. 내년 봄에도 이 무대에서 그들이 날아오르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기를 바라며.

✕
일상에 지친 직장인들이여
락 스피릿으로 충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
용기있는 도전을 지금부터
시작해 봄이 어떨까..



기업과 예술의 만남
— 그 아름다운 순간 —
노행



同
行

Gyeongnam Mecenat



경남은행

STX 조선해양 & STX 엔진

경남자동차판매

삼천포화력발전소

우수 A.M,S

신택

에코시스템



기업이 예술을 후원하고 예술이 기업을 운택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동행' 이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원사들

사이에서 탄탄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다.

조그만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되는 문화적 시너지 효과는

이제 경남지역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게는 꼭 필요한 요소가 되었다.

기업들이 만들어나가는 21세기 문화경쟁력은

그들이 후원하는 물질적 가치의 볼륨을 훨씬 뛰어넘는

기업가치 향상의 필수조건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남의 기업과 문화예술단체들이 만들어 내는

그 생생한 '아름다운 동행' 의 현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자.



경남은행과 함께하는 **울지마 톤즈** 미/공개 사진



‘울지마 톤즈’로 하나 된 경남은행과 경남도민의 큰 ‘소통’

처음부터 예상했던 숫자는 아니었다.
매일 200명, 누적 관람객 4,000명을 훨씬
넘으며 뜨거운 눈물로 손수건을 적셨던
‘울지마 톤즈’의 관객들은 경남은행의
진정한 고객이 되었다.

봄 햇살이 따사롭다. 옷깃을 스치는 바람에도 봄의 무게가 실렸다. 이런 날은 섬진강 모래사장과 강바람, 하동 십리 벚꽃의 유혹에 늘 흔들린다. 주차간산(走車看山)으로 다녀와도 죽히 반나절은 걸리는 곳, 어찌랴! 모두 자기만의 일이 있는 것을. 일상의 사치를 접어둔 2011년 4월의 한 날. 수많은 아쉬움을 대신하고도 남을, 아니! 기억 하기에 가장 경이롭고 눈부신 봄날을 경험했다.

—경남은행에서 사랑을 만나다

아프리카 수단. 북구 아프리카계와 남부 아프리카계의 갈등과 그로 인한 기아와 병마 속에서 눈물마저 말라버린 아이들과 함께했던 故 이태석 신부. 그의 이야기 ‘울지마 톤즈’가 상영되는 경남은행 본점 지하 2층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영화 시작 한참 전부터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부터가 일반 극장과 사뭇 다르다. 뿐만 아니다. 그들은 팝콘과 콜라대신 한결같이 휴지를 들고 있다. 두루말이에서 물티슈까지....

열흘 전에 예약했는데 겨우 맨 끝자리 좌석을 확보했노라고 행복해 하는 이들, 좌석 표도 없이 “어떻게든 관람하도록 해드리겠다”는 은행직원의 말만 믿고 함안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어머니, 대학생 아들과 서서라도 보겠다며 막무가내로 찾아온 모자커플. 극장을 찾은 이들의 다양한 사연들과 함께 로비에서부터 영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결국 그 휴지들은 모두 자기 뒤통을 한 모양이다. 영화가 끝난 후, 숙연해진 이들의 코끝이 모두 빨갱게 물들어 있다. 영화가 끝나자마자 수녀어린이후원회의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부부, 저도 의사가 되어 수단을 꼭 찾아 갈 거라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와 아직도 눈물이 그치지 않는 5학년 아이.... 경남은행은 한편의 영화로 나와 가족과 다른 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 주었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선물했다.

신부이자 의사였고, 지휘자이자 건축가였으며, 선생님이자 아버지였던 그를 보면서 인간이 인간에게 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세상에 없던 사람, 정말 이제는 세상에 없는 故 이태석 신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술한 이들의 가슴에 봄날의 꽃잎과 영화 속 수단의 먼지가 함께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직원 사랑? 아니 지역민에 대한 사랑!!

매일 200명 이상이 관람해 누적 관람객 4,000명을 훨씬 넘었다. 어느 영화관의 이야기가 아니다. 전문 영화관도 아닌 지역의 은행에서 그야말로 대박 영화가 탄생했다. 영화관람 행사는 은행장 취임 후, 박영빈 행장의 지역민들과 함께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했다.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차 상영, 이후 15일까지 연장 상영기간 동안 매일 스무 명의 경남은행 직원이 자원봉사에 나섰다. 하루 일과 후 힘들 법도 하지만 지역민과 함께 한다는 기쁨에 피곤을 느낄 새도 없었다고 한다. 이런 경남은행과 직원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 지역민들은 올 봄, 사랑과 행복을 배웠다.

소리 없이 실천하는 경남은행

3월 23일, 경남은행은 박영빈 경남은행장의 취임과 함께 대한민국 일등 지방은행, 지역의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민과 나누는 경남은행이 되기 위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해왔던 노인복지 행사와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떡국과 송편, 연탄, 김장, 팔죽 나누기는 이미 유명하다. 또, 소문나지 않았지만 경남 지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소외계층에 따뜻한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사랑의 특식' 행사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세상 나누이'도 경남은행이 소리 없이 행하는 일이다.

직원들의 자부심이 되는 일터, 투자자들이 가장 투자하고 싶은 투자처, 지역 사회와 고객이 신뢰하는 은행, 경남은행이 펼쳐갈 앞날의 행보가 더욱 더 기대되는 계절이다.



영화와 함께 하는 클래식으로 직원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STX조선해양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직원들이 창의성을 발휘하고, 유연하게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문화 사업들을 펼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해설이 있는 음악회'가 각광받고 있는데,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 음악을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해설과 함께 들려줌으로써 부담 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문화예술의 감동으로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이하고자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기획하고 있는 STX조선해양(주)는 더 나아가 '영화 속 클래식 음악'을 주제로 하여 영상과 해설,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수업을 준비했다.

수업이 열린 곳은 거대한 범선 모양으로 마치 선상크루즈를 연상시키는 마린센터 꼭대기층. 창밖으로 불빛에 반짝이는 진해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이다. 행사를 주최한 홍보팀은 이날을 위해 음향시설을 새로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각 테이블에 다과까지 정성스레 준비하며 만반의 준비를 다하였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경남팍스오케스트라 지휘자 박현수 교수는 영화와 음악을 아우르는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영화 속 명장면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해설과 함께 들려주었다. 특히 로만 폴라스키의 '피아니스트'에서 나치에 쫓겨 숨어 지내던 실존 피아니스트 스펀만이 적군 앞에서 온몸을 떨며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이르자 모두들 숨을 죽였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한 곡은 쇼팽의 녹턴. 지금까지 들어왔던 어느 피아노 연주보다 서늘하고 아름다웠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무심코 흘러 보았던 영화 속 음악들에 담긴 스토리에 감탄하며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클래식 음악이 한결 가깝게 느껴진 것은 물론이다. 갓 입사하여 행사에 참여한 이현경 주임은 "딱딱해보였던 조선소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게 될 줄 몰랐어요. 우리 회사 정말 멋지죠? 덕분에 앞으로 클래식 음악을 즐겨들을 것 같아요"라며 환하게 웃었다.

STX조선해양은 앞으로도 직원들이 즐겁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흥미를 가미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열어 나갈 계획이다.





STX종합기술원에서 피어오르는 예술의 향기

STX엔진은 기업성장과 사회공헌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문화예술의 가치를 이해하고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문화경영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위치한 STX종합기술원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2층 로비와 21층 접견실에 갤러리를 마련하여 지역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전시해놓은 것이다. 특히 2층 로비의 갤러리는 직원은 물론 지역민에게도 개방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평소 문화예술 보급에 관심이 많았던 STX엔진(주)는 종합기술원이 완공된 2010년부터 경남메세나협회의 미술작품 대여사업에 참여하였고, 만족스러운 결과에 올해도 참여하게 되었다. 공간 구조와 분위기, 그리고 방문객들의 성향을 고려한 작품 선택으로 각 공간마다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멋스러운 갤러리가 연출되었다.

담당을 맡고 있는 STX엔진의 김영호 팀장은 갤러리 운영을 통해 지역민에 대한 문화예술공헌, 지역미술의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이야기하며 “특히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직원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다. 직원들이 안목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기업의 성공으로 직결된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STX엔진은 지난 4월 22일 창원시의 협조로 창원시립예술단을 초청하여 STX 계열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 음악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글로벌 초일류 기업을 향하여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STX 그룹의 순항을 바라며 열린 뜻깊은 행사로,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음악을 감상하였다.

이밖에도 STX엔진은 매주 금요일 아침 임직원을 위한 특강을 개최하고 있는데, 월 1회 정도 우리 지역 예술인들을 초청하여 예술 강연을 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예술의 풍부한 감성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자동차판매의 '옷칠회화전'

동서양 명품의 조우 '옷칠회화'와 '메르세데스-벤츠'가 만난다.

봄비치고 제법 많은 비가 내린다. 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박또박 내리는 빗소리를 좋아한다. 빗소리를 들으면
가슴에 묻은 때가 조금은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랄까.



이렇게 봄비가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는 날, 창원 메르세데스-벤츠 전시장에서 고객 초청 옷칠회화전이 열렸다.

전통공예품에 주로 사용되던 옷칠이 미술옷을 입어 만들어진 것이 '옷칠회화'라고 한다. 깊고 은은한 광택의 옷칠에 현대 회화를 접목시킨 옷칠회화는 통영옷칠미술관 김성수 관장이 새롭게 개척한 미술장르다.

김성수 관장은 우리 전통예술인 옷칠공예가 갈수록 빛을 잃어가는 것이 안타까워 사재를 털어 통영에 옷칠미술관을 세웠다. 미술관 건립 후 꾸준한 작품 활동으로 한국의 옷칠회화상을 정립하는 한편, 옷칠미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지금은 미술의 한 분야로 당당히 자리잡아가고 있다. 경남자동차판매(주)는 이러한 김성수 관장의 열정에 감동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작품에 틀이 없어... 와... 신기하다

이번에 전시된 옷칠회화는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장르지만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소중히 다루던 옷칠공예품을 보는 것처럼 한 눈에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작품을 감상하는 고객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가웃거린다.

“ 뭐지... 작품에 틀이 없어. 이렇게 만져도 되나. ”

머뭇거리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작품들에 살며시 손을 대보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옷칠회화의 가장 큰 특징이다. 옷칠회화는 별도의 틀이 없다. 틀을 겸하여 디자인한 옷칠목태캔버스는 나무 판자 위에 옷칠로 베바르기, 옷칠하기를 반복해 면을 고르게 마감하는 전통나전칠기법으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유리를 낀 작품들이 없는 것이다. 때문에 관객들이 더 친근감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작품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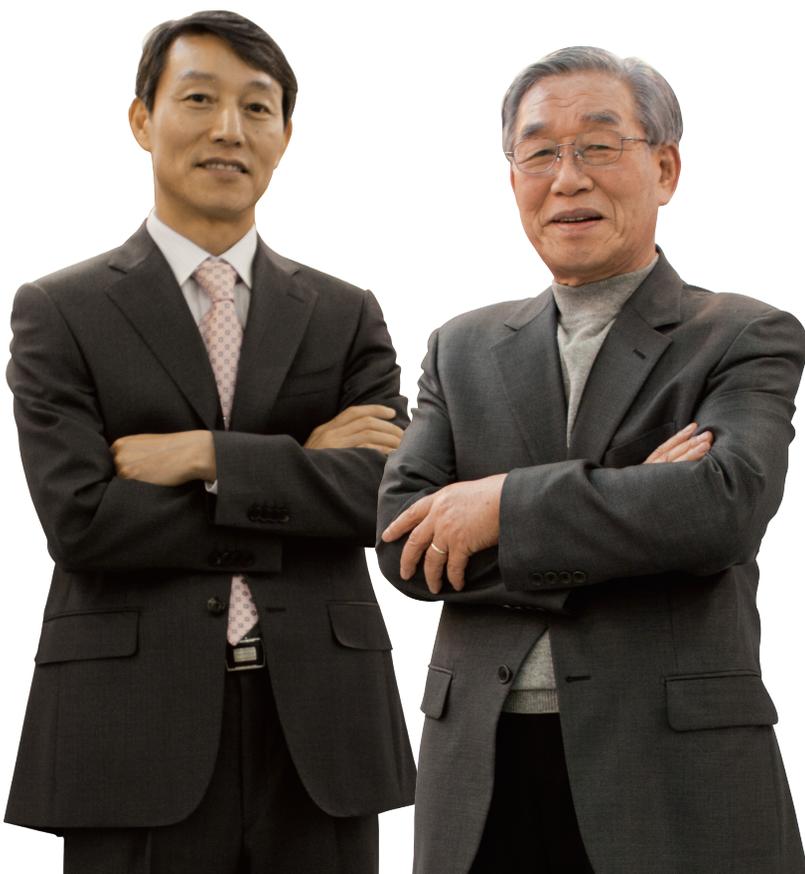
클래식 선율로 더해진 동서양의 조화로운 만남

전시장을 빛낸 또 다른 주인공은 낮은 환경에서도 시종일관 환한 웃음으로 연주하여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경남첼버쏘사이어티다. 경남자동차판매는 10년 전부터 수준 높은 연주 실력을 갖춘 경남첼버쏘사이어티가 연주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서포트해 주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 전시회에서 클래식 연주회를 열게 된 것이다.

고객들은 우리의 전통예술인 옷칠회화와 서양의 벤츠 자동차, 그리고 클래식 연주가 조화롭게 빛어내는 우아한 분위기에 흠뻑 빠져들었다.

고객의 사랑 이제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승화

경남자동차판매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공식딜러다. 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명품 브랜드 메르세데스-벤츠가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그 밑바탕에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무한신뢰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고객들이 보여준 믿음과 사랑에 경남자동차판매는 문화예술의 무한한 감동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예술의 감동과 명품 브랜드의 가치는 함께 할수록 더욱 깊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의 지역사랑

‘박재삼 문학과 예술공감’

2011년 사천의 숨은 보물

박재삼을 다시 만나다.

저것 봐, 저것 봐,
 네보담도 네보담도
 그 기쁨 첫사랑 산골물소리가 사라지고
 그 다음 사랑끝에 생긴 울음까지 녹이내고
 이제는 미칠 일 하나로 바다에 다 와 가는
 소리죽은 가을 강을 처음 보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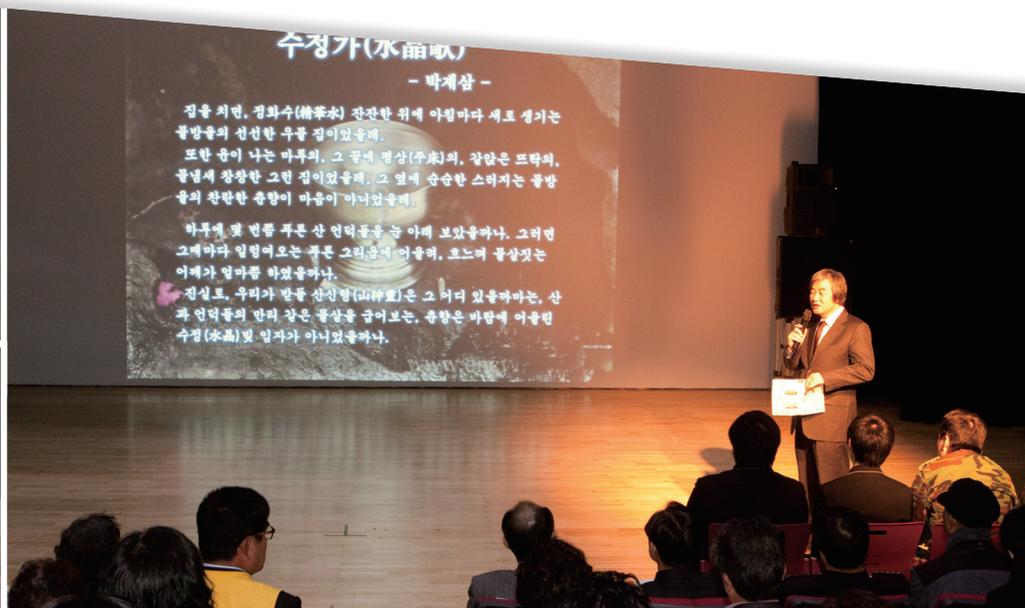
- 박재삼 '울음이 타는 강' 중



경남 삼천포 출신 박재삼 시인은 김소월, 정지용, 서정주로 이어지는 민족서정시의 전통을 계승하여 따뜻한 고향의 정서로 노래한 시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97년 6월 세상을 떠난 박재삼 시인의 시 세계는 ‘춘향이 마음’, ‘울음이 타는 가을 강’, ‘밤바다에서’로 대표된다. 시인은 자신의 시에서 한국 서정시의 전통적 음색을 재현했는데 대부분 소박한 일상생활과 자연에서 소재를 찾았다고 한다.

바로 천혜의 자연을 가진 경남 사천의 아름다운 풍광이 그의 작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수정가(水滄歌)
 - 박재삼 -

집을 떠면, 김화수(精華水) 잔잔한 위에 아릿마다 세로 생기는
 물방울의 선선한 우물 집이었을래.
 또한 맑이 나는 마루의, 그 맑이 정삼(亭室)의, 잠안은 뜨락의,
 물넘새 장장한 그런 집이었을래. 그 옆에 순순한 스러져는 물방
 울의 찬란한 총합이 마음이 아니었을래.

하루에 몇 번쯤 푸른 산 언덕들을 늘 아예 보았을까나. 그러던
 그때마다 일렁여오는 푸른 그리움의 언덕의, 흐느껴 물살짓는
 어제가 얼마쯤 하였을까나.

정실로, 우리가 밭물 산천정(山神聖)은 그 어디 있었을까나, 산
 과 언덕들의 맑리 맑은 물살을 굽어보는, 총합은 바람에 어울린
 수정(水滄)의 입자가 아니었을까나.



interview

“ 지역실정에 맞는 메세나 활동으로
삼천포를 문화예술 브랜드로
만들어 가고 싶어...”

이렇게 사천이 자랑할 만한 훌륭한 시인으로 지역에는 그의 이름을 딴 '박재삼 문화관'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사천 주민들에게 '시인 박재삼'은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남동발전(주)삼천포화력본부가 사천예총의 협조로 메세나 활동을 펼치며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민과 함께 하는 박재삼 문학과 예술공감'이란 행사로 박재삼 시인을 알리고, 전국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로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올해 1월을 시작으로 매달 행사를 진행해오면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율도 높아지고 있다. 프로그램은 박재삼기념사업회 정삼조 회장의 문학강연 및 시낭송회 회원들과 지역민들의 시 낭송으로 이루어지며, 거기에 다양한 공연도 함께 한다. 특히 공연은 지역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해 이루어진 것으로, 무료공연이지만 지역예술인들에게는 예술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가 되고, 주민들에게는 허기졌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 행사가 지역민과 지역예술인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만으로도 '박재삼 문학과 예술공감'이 가지는 의미는 충분하다.

사천에서 시작된 '박재삼 문화제'가 소중한 씨앗이 되어 조만간 전 국민이 박재삼 시인의 시와 그의 시세계의 매력에 흠뻑 취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더불어 사천 시민들이 박재삼 시인의 시를 통해 문학적 정서를 높여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살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한 본부장

원래 문화예술에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을 내어 문화예술을 접하는 것이 삶의 윤택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 자신이 신바람나게 일하고 싶어서, 그리고 직원들에게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 기회를 주어 일상에 활력을 주고, 지역민들의 문화적 정서 함양에 보탬이 되어 모두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화예술 지원을 시작하였다.

우리 본부는 박재삼 문학행사 외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장려사업을 펼치고 있다. 박재삼 시집과 시낭송 cd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하였고, '초등학생의 낭송을 위한 시선집' 발간을 지원하여 어린이들이 시에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북캘리'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회사내 19개 부서가 책을 돌려 읽을 수 있도록 하였고, 북캘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 경찰서, 시청에 서가와 책을 구입하여 기증하기도 하였다. 지난 3월 창립 10주년 기념식에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신춘 음악회를 개최하여 겨우내 움츠려 있던 주민들에게 싱그러운 봄의 선율을 선사하였다.

앞으로도 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를 지역주민, 예술인들과 함께 펼쳐갈 계획이며, 나아가 예술단체에 회사의 매니지먼트 노하우를 전수해주어 지역 예술의 역량강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고양하여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삼천포항 문화예술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싶다.

우수AMS와 함께 하는 시낭송 문학 페스티벌

봄이 무르익은 5월의 어느 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공장에서
아주 특별한 시낭송 무대가 펼쳐졌다.

지난 5월 27일 저녁 우수AMS(주) 야외특설무대에서 '시를 낭송하는 사회'가 열려 퇴근길 직장인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우수AMS는 자동차 부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창원 공장을 비롯해 울산, 김해, 그리고 인도에 현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건실한 중소기업이다. 우수AMS는 지난해 경상남도 문인협회와 결연을 맺은 이후 메세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연말 문인협회 행사에 참여한 우수AMS 전종인 회장은 문인들 앞에서 직접 시 낭송을 들려주기도 했다. '시를 낭송하는 기업가'의 낮은 모습이 문인들에게는 감동 그 자체였다고 한다.





CEO가 문학을 좋아해서인지 우수AMS 분위기도 여느 기업과는 달랐다. 2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창원공장의 휴게실 한 칸에는 200여 권을 책을 구비해놓고, 직원들이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다. 이제 우수AMS에서 점심시간이면 휴게실을 찾아 책을 읽는 직원들의 모습은 자연스런 일상이 되고 있다. 직원들이 스스럼 없이 함께 책을 읽고 토론회도 열었으면 좋겠다며 말할 정도로 현재의 회사 분위기에 만족하는 눈치다.

이날 낭송회에는 전종인 회장을 비롯하여 최충경 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김복근 경남 문인협회회장, 우수AMS 직원들과 문협 회원들이 참여하여 시 낭송을 하였다. 시 낭송에 참여한 우수AMS 직원 김보람 씨는 전 임직원과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미당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를 낭송했다. 프로그 아닌 까닭에 신선함이 그대로 묻어나 시인들의 시 낭송과 사뭇 다른 느낌이었다.

“평소 좋아하는 시를 선택해서 연습해 봤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 감정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어디서 해볼 수 없는 경험을 해 좋았어요”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직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종종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시를 낭송하는 사회를 함께 준비한 경남문인협회도 색다른 경험에 흥분해 있었다. 시 낭송뿐 아니라 시 노래, 시극, 수필무용, 색소폰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들을 곁들인 새로운 시도에 대해 과연 관중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해했다. 공연을 보면서 시 낭송이 의외로 괜찮은 무대 공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 낭송이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했다.

기계 소리 멈추지 않는 공단 내에서 울려 퍼진 낭송문학페스티벌 '시를 낭송하는 사회' 그동안 멀게 느껴졌던 문학이 우리 곁으로 좀더 가까이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신사옥 '신택타워' 준공과 함께 문화예술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신택

(주)신택이 지난 5월 11일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서 신사옥 '신택 타워'를 준공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올해로 창업 10주년을 맞이하는 신택은 화력발전소 및 제철, 석유화학 플랜트에 사용되는 100MW~300MW의 중대형 산업용 보일러를 주력 생산하며 독보적인 경쟁력을 키워온 기업으로, 특히 올해 3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유망기업이다.

이러한 신택의 위상을 말해주듯 준공식에는 조용수 회장과 지역 국회의원, 기관장, 업계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신택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준공식을 빛내주었던 또 하나의 특별한 행사! 메세나 결연을 맺고 있는 동락문화예술연구회가 함께한 '신택 임직원 가훈 전시회'가 신사옥 16층에서 열린 것이다.

동락문화예술연구회는 찾아가는 미술·서예 교실, 동락 해외초대 전과 회원전시를 병행하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로 신택과 결연 후 전 직원에게 가훈을 써주었고, 미술교실을 열어 직원들에게 문화

예술 체험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끈끈한 교류의 결과로 준공식이라는 특별한 행사에서 가훈 전시회가 열린 것이다. 신택 직원들과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가훈들은 동락문화예술연구회 박금숙 회장의 붓글씨로 생명을 얻어 전시회장을 빛내고 있었다.

신택과 메세나 결연을 맺고 있는 또 다른 예술단체인 '경남피아노 듀오협회' 단원들이 축하 연주회를 열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이번 연주회는 평소 신택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왔던 피아노듀오협회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준공식에서 뜻하지 않게 문화예술의 세례를 듬뿍 받은 참석자들에게 신택은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는 유망기업일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사회를 풍요롭게 해주는 문화기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메세나의 좋은 본보기로 자리매김한 신택의 문화예술 활동이 앞으로도 주욱 계속되길 기대해본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에코시스템(주)은 산업폐기물 최종 처리와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환경전문업체이다.

에코시스템의 제조 계열사인 지스코(JISCO)는 철 못을 생산하여 북미, 남미, 유럽 등 해외 여러 국가에 수출해 오고 있는 업체로, 최근 미국의 주요 고객사 2곳에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경영진은 늘 하는 일상적인 공장 견학이나 비즈니스 미팅에서 벗어나, 고객에게 오랜 추억과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메세나 결연단체인 경남프리마앙상블을 초청하여 공연을 선보이기로 결정했다.

에코시스템의 정찬희 사장은 경남오페라단의 단장을 맡고 있어 그동안 개인적으로 합창단을 후원해왔고, 작년 연말 회사 송년회에서 열렸던 경남프리마앙상블의 공연이 직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자 그것을 계기로 올해 메세나 결연을 맺게 되었다.

지난해 모 예능프로그램에서 선보인 합창단이 전 국민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적이 있었다. 사람의 목소리로 만들어진 노래가 무한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때문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에코시스템이 전하는 노래의 향기

흔히 인간의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악기라고 표현한다. 때문에 깨끗하고 순수한 목소리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하모니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는 것이 아닐까.



이날 경남프리마앙상블 단원들이 빛어내는 아름다운 하모니 역시 감동의 연속이었다. 합창곡인 <넬라판타지아>, <꽃>, <Sing Sing Sing>, <One night only> 그리고 앵콜곡인 <청산에 살리라>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켜보는 이들은 차분히 음악에 빠져들고, 때로는 단원들의 울동에 같이 흥겨워하고, 노래하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소중히 담기도 하고, 큰 박수도 아끼지 않는 등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다.

행사를 기획한 에코시스템 김정호 차장은 “지역사회에서 다채로운 공연활동을 하는 경남프리마앙상블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공연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음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고 싶다”며 행사를 빛내준 합창단에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예술과 여행

통영, 첫사랑을 만난 듯 가슴 설레는 그곳

싱그러운 신록에 마음 설레는 두월,

위대한 예술가들을 배출한 예향 통영으로의 여행길에 올랐다.

경남메세나협회의 '통영예술기행'을 통해 자연을 즐기고 예술을 탐미할 수 있는 시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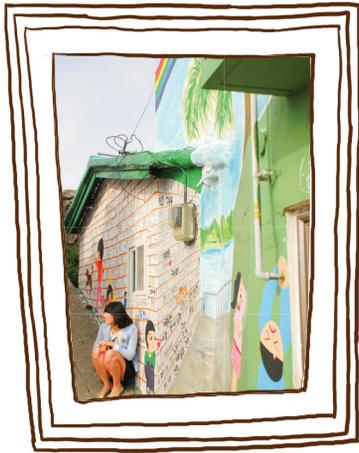
가질 수 있게 되어 출발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올랐다.

'옷칠예술' 속에 빛나는 자연미학

예술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통영에서 가장 먼저 발길이 닿은 곳은 전국 유일의 옷칠미술관인 통영 옷칠미술관이었다. 김성수 관장님이 환한 미소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전문 학예사의 친절하 설명을 들으며 작품관람을 시작하였다.

'옷칠'이란 옷나무에서 채취한 수액을 일컫는 말로, '옷칠'을 사용해 그린 그림이 '옷칠화'라 한다. '옷칠화'와 일반 유화의 개념적 차이는 없으며, '옷칠'이 자체의 광채를 가지고 있어 그림을 그리면 자연 광택이 나는 것이라 하였다. 크리스탈이 빛에 반사되어 반짝거리듯이... 참 신기한 자연재료임에 틀림없다. 그 외에 자개장처럼 자개를 붙여 아름다움을 더한 장식품들도 많았다. 아이들은 하나같이 "어! 이거 우리 할머니 집에서 봤어요!"라며 신기해했다. '옷칠'이 '옷'으로 칠한다는 뜻이 절대 아니었음을 깨우치며 '동피랑'으로 이동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마을 '동피랑'

동쪽벼랑이란 뜻의 '동피랑'은 산 언덕배기 마을로 개발 예정이었으나 벽화마을로 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자 통영시에서 철거 방침을 철회했다고 한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언덕 위로 주황, 파랑 지붕들 아래 하얀 벽을 두른 집들이 다닥다닥 이어져 있었고, 벽에는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어 이국적 정취가 느껴졌다.

'동피랑'에 들어서며 제일 먼저 만난 벽화는 '동피랑에 꿈이 살고 있습니다'라는 글귀였다. 그 꿈을 좇아 골목을 따라, 벽화를 따라 한발 한발 내딛어보았다. 뒷짐 지고 서서 '퍼뜩 오이소'라고 말하는 노부부의 모습, 원색의 컬러로 아이들의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린 모습, 커다란 고래와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었다. '동피랑'의 가장 인기 있는 벽화는 단연 '천사날개' 벽화였다. 사람들은 마치 천사가 된 양 날개 사이에 두 팔을 벌리고 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었다. the 큰병원의 신병석 부장님의 딸 지수양도 줄을 서서 사진을 찍더니 "날개가 정말 커서 팔을 벌리면 하늘로 날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너무 예뻐요."라며 행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현대음악의 거장

윤이상 기념관은 독특한 건축구조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역시나 '좋은건물발주자상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고 한다. 유품전시관과 실내공연장, 실외공연장을 갖추고 있어 볼거리도 풍부한 이곳에는 선생의 흉상과 살아생전 사용하였던 각종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어 선생의 삶의 모습, 음악과 조국에 대한 애정을 엿볼 수 있었다.

윤이상 선생은 박정희 정권시절, 독일에서 작품을 위해 유학시절의 친구를 보러 북한에 갔다가 동백림 사건(동베를린사건)에 연루돼 간첩으로 오인 받고 한국으로 납치돼 사형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당시 세계의 예술가들이 독일정부에 탄원서를 내자 독일은 우리정부에 그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결국 국제적인 시선에 못 이겨 선생을 석방하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영구 추방하였다고 한다. 1972년 뮌헨 올림픽 개막축하 오페라 '심청'을 비롯하여 수많은 작품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과 명성을 떨치고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지만, 살아생전 그토록 그리던 고향 통영에 돌아오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관람을 마친 STX조선해양의 유민자씨는 "통영에선 매년 '통영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선생의 예술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음악제를 보러 꼭 다시 와야겠어요. 이렇게라도 윤이상 선생의 업적을 기려야죠."라며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던 윤이상 선생의 운명에 마음아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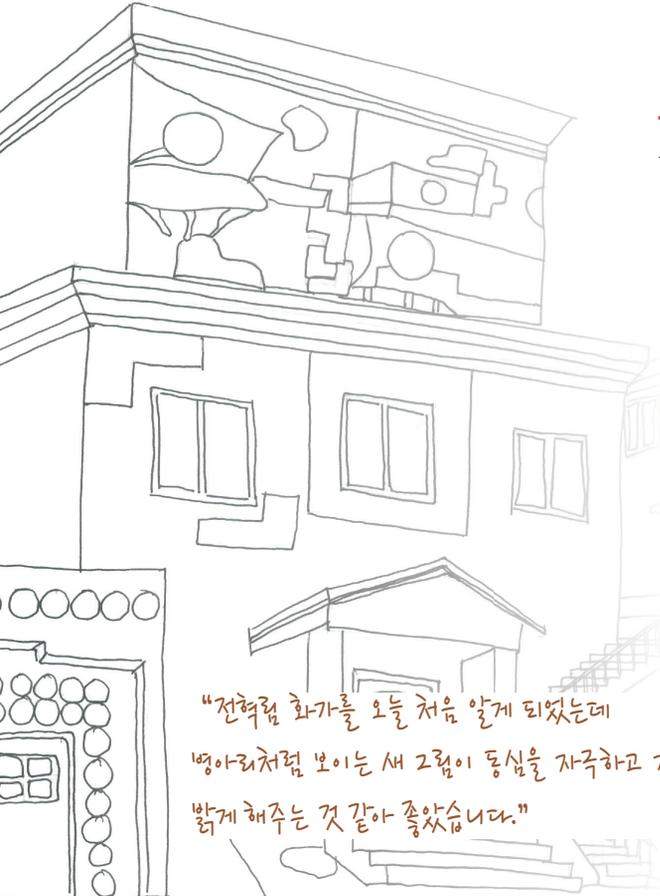
통영에서 태어나 통영에 묻힌 현대문학의 어머니

조금 떨어진 '박경리 기념관'을 찾았다. 이곳에는 선생의 집필실이 복원되어 있어 (토지)를 포함한 많은 작품이 탄생되었던 공간을 엿볼 수 있었고, 육필 원고와 활동 영상을 볼 수 있었다. 박경리 선생의 삶의 터전이 고스란히 옮겨져 있는 듯 차분하고 정적인 느낌의 기념관 뒤편에는 추모공원으로 가는 길이 있었다. 날이 더워 비탈진 길과 계단을 올라가느라 조금 애를 먹긴 했지만 잘 가꿔진 정원으로 눈이 호강하고, 중간 중간 쉴 수 있도록 마련해둔 벤치와 묘소 정상에 있는 정자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니 더위는 금세 잊고 자연 속에 빠져들었다. 정자에 앉아 바라본 저 멀리 산 아래 통영바다는 가슴을 탁 트이게 해주었다.

바다의 화가 '전혁림'

통영이 나온 또 다른 예술가를 만나러 '전혁림미술관'을 찾았다. '색채의 마술사', '한국의 피카소'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미술관 외벽은 강렬한 원색의 타일로 꾸며져 있었다. '가장 통영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개념으로, 바다의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전통 사찰의 중요 요소인 탑의 형태를 접목한 미술관의 외벽타일은 전혁림 화백의 작품을 옮겨 장식한 것이었는데, 색감이 화려하고 강렬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었다. 건물의 첫인상이 무척이나 강렬해 건물 내부에 전시되어 있을 전혁림 화백의 작품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졌다. 실내로 들어서니 빨강, 파랑, 노랑의 대비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는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통영과 다도해를 화폭에 담은 그의 그림은 푸른색이 지배적이었는데, 아마도 통영 바다의 강렬한 푸른색이 그를 사로잡은 게 아니었을까. 강렬한 원색의 대비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를 뿜어내게 하는 힘이 있는 듯 찬찬히 전시실을 둘러보다보니 원지 모를 흥이 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전혁림 화가를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멍아리처럼 보이는 새 그림이 동심을 자극하고 기분을
밝게 해주는 것 같아 좋았습니다."





자연 앞에 겸손해지며 마음의 풍요를 느꼈던 하루

마지막 코스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를 타고 미륵산 정상에 올랐다. 국내 최장거리로, 관광객이 넘쳐났다. 케이블카에서 내려 15분 거리의 미륵산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는데, 내려다보이는 통영의 모습에 힘든 줄도 모르고 감탄사만 연발하였다. 미륵산 정상에서 한려수도를 한 눈에 담아 보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었다. 산과 바다가 절경을 이룬 모습은 벅찬 감동으로 그 어떤 미사여구도 필요치 않았다.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며 마음이 한결 유해지고 겸손해짐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순간이었다.



작은 도시를 기웃거리며 가슴속에 뭔지 모를 풍부함을 새겼던 시간.
푸른빛의 바다와 색색의 지붕들을 보고만 있어도 엔돌핀이 돌았던 하루.
조국을 그리고 통영을 사랑했던 많은 예술가들의 삶을 접하며 겸허해지던 시간.



눈부신 바다와 드높은 하늘아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시간과 멋진 추억을 선물해준 통영에서의 하루는 동화 속에서 꿈을 꾸듯 소년·소녀의 설렘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 광활한 자연을 마주하며
마음이 한결 유해지고
겸손해짐을 느낄 수 있는
감사한 순간이었다. ”



GIAF

Gyeongnam International Art Fair

2011 경남국제아트페어

2011 경남국제아트페어는 경상남도과 창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경남지회, 창원컨벤션센터, (사)경남메세나협회의, 경남신문이 공동 주관하는 국제아트페어로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작가발굴 및 지원시스템을 추구하는 대형전시와 미술품거래를 위한 종합미술박람회입니다.

2011년 9월 창원컨벤션센터 CECO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11 경남국제아트페어(GIAF)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가를 바랍니다.

| 전시내용 |

- 아트페어 공모 개인부스전 : 2종 100부스 (3mx3m 50개, 3mx6m 50개)
- 아트페어 외국작가 및 화랑초대전 : 20부스 (3mx3m 10개, 3mx6m 10개)
- 아트페어 옥션 및 부대행사 : 14부스 (120㎡ 100석 규모)

| 전시일정 | ※전시장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 장 소 : 창원컨벤션센터(CECO) 제1전시장
- 전시기간 : 2011. 9. 22(목) - 9. 25(일) (4일간)
- 관람시간 : 2011. 9. 22(목) - 9. 25(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 개 막 식 : 2011. 9. 22(목) 오후 3시 - 오후 5시
- 개막식 장소 : 창원 CECO 제1전시장 특설무대

| 참여작가 신청안내 |

- 접수기간 : 2011. 6. 1(수) - 7. 29(금) (※ 29일 -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 참가자격 : 만20세 이상 작가
- 참여작가 시상 : GIAF상(경남국제아트페어상 1명) 상패 및 2012년 시상, 개인부스 무료 초대
GIAF인기상(평면 1명 / 입체 및 영상 1명) 상패 및 2012년 시상, 개인부스 무료 초대

주 최 :  경상남도  창원시

주 관 : (사)경남미술협회, 창원컨벤션센터, (사)경남메세나협회의, 경남신문

후 원 : (사)한국미술협회, 경남예총

2011 경남국제아트페어 홈페이지 www.2011giaf.co.kr

Mecenat in Culture

경남 출신의 예술인들의 삶을
근접 조명하여 숨겨진 일화 등을 소개하고,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가장 한국적인 색채화가

박생광

색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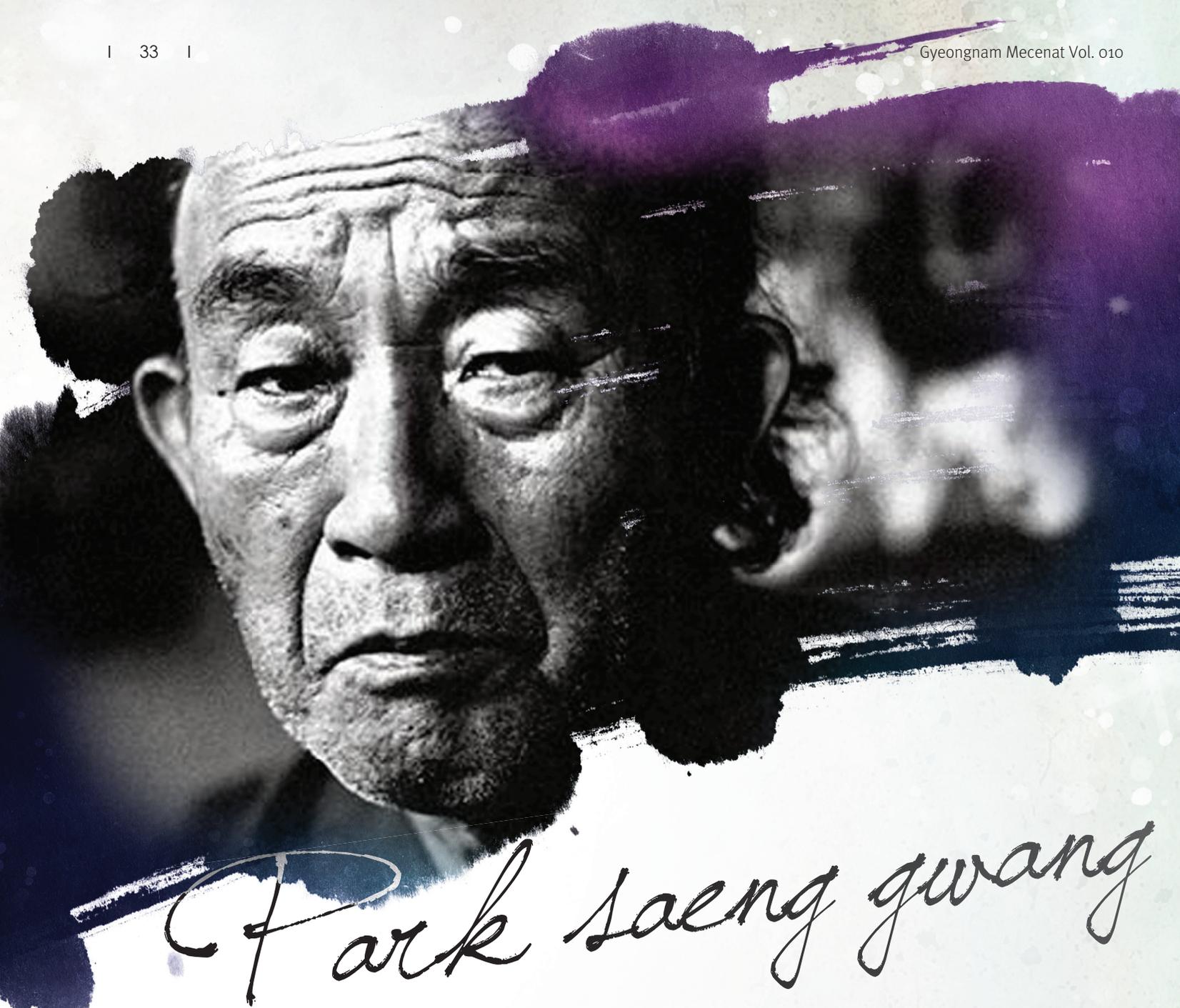
글 - 박서영

1. 녹두장군 [전봉준]과 선홍빛 「명성황후」를 그린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역사란 무엇일까. 변화와 격랑의 물결 위에서 우리나라는 강렬한 민족감정과 해방, 그리고 자유와 혁명을 꿈꾸는 운명을 거쳐야 했다. 박생광이 태어난 1904년은 러·일전쟁이 발발한 해였고 1905년엔 을사조약이 체결되어 외교권을 강탈당했다. 1910년에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국호마저 조선으로 바뀌게 되었다. 17세에 일본으로 건너가 미술 공부를 했던 박생광은 광복 후 고향 진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지만, 당시 채색화는 왜색의 느낌이 강하다는 이유로 배척당했다. 그러나 박생광은 끝없이 우리의 전통 민화와 불화기법을 연구하여 가장 한국적인 채색화를 완성시켰다. 그는 화폭을 삼킬 듯한 색채의 미학을 남기고 한국 역사상 가장 한국적인 그림을 창조하여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당당히 올라가 있는 거장이다. 2001년 월간 '아트 인 컬처'는 국내 현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평론가와 큐레이터 21명에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는 누구인가를 물은 적이 있다. 조사결과 화가 박생광과 이용노가 '베스트 작가'로 뽑혔다.

화가 박생광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우리미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그림 「전봉준」과 「명성황후」를 빼놓을 수 없다. 전봉준은 조선동학혁명의 지도자로 키가 작아 녹두장군으로 불렸다고 한다. '청포장수'를 빗대 부른 노래에서 녹두밭은 농민군, 녹두꽃은 전봉준, 파랑새는 청나라와 일본군, 청포장수는 우리 백성을 의미한다. 그림은 3.6미터의 키에 5.1미터의 너비를 자랑하는 대작으로 붉은색과 흰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 검정들이 뒤엉켜 스며있고 강렬하다. 흰 옷을 입은 농민들 한 가운데서 전봉준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전봉준 바로 뒤에 박생광은 자신을 그려 넣었다. 전봉준의 눈빛은 맹렬히 진동하고 달려들 듯 한 광기를 스스로 다스리는 듯하다. 고통의 화인(火印)을 암시하고 있는 그림 「전봉준」을 통해 화가는 자신의 철학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박생광의 그림 속에서 어떤 비애를 느끼기 보다는 강렬한 주술적인 힘을 느낀다. 박생광의 화려하고 사면적인 색채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뒤섞여 우연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전봉준」이라는 그림 역시 진주라는 도시와 농민항쟁, 그리고 화가 자신의 예술혼이 뒤섞여 묘한 감동을 자아내게 한다.



Park saeng gwang

진주 축석루 앞에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류범형 선생의 『진주정신 축석루』라는 책에는 '소작농으로도 살아갈 수 없게 된 날품팔이 농민, 지주의 지나친 수탈 때문에 소작농이 불가능해진 영세 소작농, 계속 높아지지만 하는 세금부담으로 토지를 잃어가는 영세자작농이 주체가 되고, 여기에 몰락한 양반 식자층, 몰락한 전직관리까지 합세하여 일으킨 운동이 농민항쟁이며 이것이 동학혁명의 시작이라는 내용이 나온다. 근대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박생광의 탄생 100주년, 작고 20주기 기념 전시회를 진주MBC와 함께 준비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는 박생광 화백의 일대기와 작품세계가 전문가의 해설과 고증을 통해 자세히 소개되어

졌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영 미술관의 도움으로 무사히100주년 기념행사를 마칠 수 있었다. 경기도의 이영 미술관은 박생광을 후원하면서 탄생한 곳이다. 박생광의 작품100여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관장 김이환은 박생광과의 인연을 묶은 에세이집 『수유리 가는 길』을 펴내기도 했다. 『수유리 가는 길』은 1977년 김이환 관장이 민족화가 내고 박생광의 집을 찾아가면서 시작되어 바르셀로나의 전시가 있기 전까지 박생광의 인생과 예술세계를 들려주는 책이다. 일본에서 그림을 배워 왜색화가로 치부되던 노화가가 80이 다 되어 「명성황후」라는 걸작을 통해 한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 박생광의 알려지지 않은 인간성과

예술혼을 세세히 기록했다. 박생광은 색의 의미와 변화를 통해 '그대로 풍(風)'의 독창적인 회화세계를 개척하기도 했으니 그가 얼마나 민족혼에 목말라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조금만 더 연장되기를 바라면서 단군, 이순신, 전봉준, 안중근 등 역사화를 계획했으나, 「명성황후」와 「전봉준」만을 완성하고 1985년 82세의 일기로 타계하였다. 박생광의 생애가 조금 더 이어졌더라면 한국미술계는 새로운 경지의 역사화를 품을 수 있었을 것이다. 이영 미술관 관장 김이환의 책에서 그림 「명성황후」와 관련된 글귀를 찾았다.

2. 선홍빛 명성황후 스페인을 사로잡다

1983년 내고 박생광은 이듬해에 열릴 문예진흥원 전시회를 위해 폭330cm 길이200cm의 대작을 그렸다. 좁은 방바닥에 펼쳐진 화폭 위에 한 뭉큼 밖에 안되게 짚고려 앉거나 기둥이 엎드려서 그 작품을 완성하고는 스스로 몹시 흡족해하며 내게 “땀세, 땀세!” 했었다. 감격스러운 그 그림이 바로 「명성황후」이다.

김이환 『수유리 가는 길』 중에서

경상대학교 미술교육과 김수현 평론가에 따르면 박생광은 예술을 밀고 나가는 힘을 '연애감정' 이라고 말할 정도로 나이가 들어도 식을 줄 모르는 타고난 에로스의 소유자라고 한다. 박생광 그림의 화려하고 원색적인 색채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는 생의 열정이 보인다. 그 열정은 사랑이며 운명이며 또한 하나의 우연한 사건들이 모여 만들어낸 색인 것이다. “진짜 예술가 같으면 권태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피카소를 보세요. 진짜 예술가는 도중하차라는 것이 없습니다.” 고 박생광은 말하기도 했다. 박생광은 멋부리기를 좋아해서 40대 사진을 보면 산뜻한 칼라의 셔츠에다 챙이 넓은 중절모를 쓰고 다녔다고 한다. 키는 작았지만 단단한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역사의식과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그런 역사의식이 걸작 「전봉준」 과 「명성황후」 같은 대작을 완성했다.

3. 진주사람, 박생광

박생광 부부의 무덤이 있다는 미천면으로 달렸다. 진주길이 천리라더니 미천면으로 가는 길을 물어 물어 미천 초등학교에 도착했다. 작은 마을을 끼고 산길을 달리다보니 오방리라는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절묘하게도 박생광의 그림에서 나타나는 화려한 오방색의 느낌을 그대로 간직한 마을이름이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아 겨울풍경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시골집의 지붕이며, 길이며, 오방슈퍼라는 간판에서 풍기는 따뜻하고 오래된 느낌은 역사의 귀퉁이가 깨져 조금 보이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면사무소 뒤편의 황토빛갈 집이며 짙은 청색과 주홍빛 지붕이며, 하얀 보건소 건물 등이 묘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아마도 박생광 그림의 색채를 찾다보니 자연스럽게 내 눈에 그런 색채들이 뛰어 들었던 게 분명하다. (구)미천 초등학교 자리에는 보건소와 면사무소가 들어서 있었다.

면사무소에 들러 박생광의 무덤을 묻자 모두들 그런 무덤은 이 마을에 없다고 한다. 이정표 하나 없는 박생광의 무덤을 찾아 묻고 또 물어 얼마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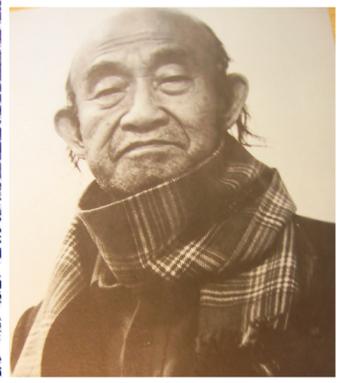


전봉준 1985
360*510cm 화선지에 채색 국립현대미술관



비석
미천면 오방리

폐교되었다는 또 하나의 미천 초등학교를 찾았다. 시골마을이 조금씩 외따로 떨어져있는 특징과 미천 초등학교 자리가 세 번이나 옮기는 바람에 생긴 소소한 혼란이 도리어 치욕적으로 휘둘린 우리의 역사에 대해 생각하게 했다. 외지인에게 참으로 가혹하고 힘든 탐방이 아닐 수 없었다. 박생광의 장례추진 위원장을 지냈다는 최태문씨와 연락이 닿았다.



박생광

“미천 농협중앙창고를 끼고 언덕을 오르면 무덤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없어 몇 번 물어봐야 할 겁니다.” 힘들게 물어 이정표하나 없는 산길을 걸어 오르니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박생광 부부의 무덤이 환한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었다. 무덤 앞에는 작고 아담한 논밭과 마을이 있고, 폐교된 (옛) 미천 초등학교는 진주에서조차 잊혀져버린 근대한국을 대표하는 화가 박생광의 쓸쓸함처럼 교문이 굳게 닫혀져있었다. 일행 중 한 명은 비석에 새겨진 글을 쓰다듬으며 진주에서 이렇게 박생광이 홀대받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우리는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잔디밭에 앉아 저녁 빛이 들판에 내려앉는 것을 보았다.

1983년 박생광은 “촉석루가 있는 유서 깊은 곳에서 논개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족을 생각하고, 고색창연한 원색 단청을 늘상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내 그림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 라고 회고하며 그의 그림세계가 진주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예향이라 불리는 진주에서 박생광의 흔적하나를 찾기 위해 참으로 많은 시간을 애들렀다. 박생광 그림의 강렬하고 거친 색채는 한국의 역사와 닮았으며, 채색화 속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국역사 속의 인물이거나 진주의 기생, 무당 등 한국적인 소재들이다.

박생광은 1904년 진주에서 태어났다. 진주보통학교와 진주 농업학교를 나와 1945년부터 1966년까지 진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다. 박생광은 1963년 경상남도 문화상을 수상했고 동서화랑의 송인식 관장 댁에서 3개월을 머문 적도 있다고 한다. 79세에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와 많은 한국적인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작으로는 전봉준, 명성황후, 토암산의 해돋이, 무녀 등이다. 전통적인 미감각의 현대적인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원색의 찬란함으로 화면을 가득 채운 화가 박생광. 역사는 사라지고 또 생성되기도 한다. 한 폭의 그림 속에서 문득 역사의 운명을 실감할 때 나는 예술의 위대함을 느낀다.*

*박서영 시인은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1995년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였고, 200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금과 2010년 요산창작기금을 받았다. 시집으로 『붉은 태양이 거미를 문다』가 있다.



경남 영화의

날개를 달다!

박재현_ 경남영화협회 사무국장



최근 '위낭소리', '똥파리' 등의 독립영화가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영화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독립영화가 경남에서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누가 처음 제작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경남의 독립영화가 음습한 지하공간에서 벗어나 세상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은 '경남독립영화제'가 처음으로 열린 2007년부터라고 할 수 있겠다.

독립영화제의 시작!

뜨거운 열정!

냉담한 반응...

우리 지역에는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도,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다. 영화를 만들더라도 서울이나 부산 등지의 영화제에서 상영될 뿐 정작 경남에서 상영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 바로 '경남독립영화제'다.

경남의 영화제를 만들어보자.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창원대학교 근처에 있는 어느 삼겹살집에서 의기투합하였다. 영화와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막막했다. 삼겹살은 거의 다 먹어가는 데 진전이 없었다. 일단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았다. 공모전 상금, 영화 수업 강사료, 칠순잔치 촬영비, 기업홍보영상 제작비 등 다양한 장르(?)의 엄청난(?) 돈을 모았다. 포스터 제작, 작품배급, 장소섭외 등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자리가 부족하다거나 며칠간 연장상영을 해 달라고 요청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은 기우였다. 관객이 한 명 앉아서 본 적이 있을 정도로 반응은 냉담했다. 그 관객조차 혼자 앉아서 보는 것이 미안했던지 중간에 나가버렸다.

제1회 경남독립영화제 마지막날, 우리지역 작품이 상영되었다. 작품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 상영장 안을 가득 채웠다. 진작 좀 오지. 작품을 만든 감독이 직접 진행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에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만들어진 제1회 경남독립영화제의 밤은 깊어갔다.



1 자녀들과 경남독립영화제에 참석하여 협회 회원들과 자리를 함께 한 이창열 원장.
 2 상남굿모닝내과병원에 전시된 포스터들.
 3 최근 성황리에 치러진 제4회 경남독립영화제에서 '문성혁 감독과의 대화' 시간.

메세나와의
 만남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경남의 독립영화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문화마인드가 있고 우리의 생각을 잘 알고 공공기관이나 타 단체와 연계를 시켜 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렇게 모신 분이 바로 정흥연 회장님(경남영화협회 초대회장)으로 취임 이후 영화협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다. 그 결과, 경남메세나협의회를 통해 상남굿모닝내과병원(이창열 원장)과 결연을 맺으면서 경남영화협회의 무한질주가 시작되었다. 2009년 제3회 경남독립영화제 개막식 관객은 약 200여명으로 지난 2년간 영화제를 다녀간 관객보다 많았으며, 제4회 경남독립영화제는 우리가 꿈에 그리던 '영화관'에서 보란 듯이 진행할 수 있었다.

정흥연 회장님이 경남영화에 초석을 다졌다면 이창열 원장님은 경남영화에 날개를 달아 주셨다고 할 수 있다. 상남굿모닝내과병원에서 '2010년 지역영화 제작지원금'을 지원 받은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다. 이것은 언뜻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공공기관의 제작지원금이나 영화제 상금, 공모전 수상금과는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다. '민간단체의 지원금'이라는 점, 상금이 아닌 '오직 제작을 위한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지역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 선례를 남겼으며, 더욱 큰 의미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누군가가 우리의 작품에 관심을 가진다'는 데 있었다.

또 한 가지 가슴 벅찬 사건은 지난 3월에 있었다. 시사회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김재한 감독이 '상남굿모닝내과병원과 함께하는 독립영화 시사회'에서 자신의 장편영화 '조용한 남자'의 시사회를 영화관에서 갖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140석 규모의 영화관에 200명 정도의 관객이 왔다. 자리가 없어서 계단에 앉아서 보고 입구에 서서 보기도 했다.

'경남독립영화제의 탄생'과 '영화관 시사회'는 경남영화의 역사를 바꾼 '혁명'이라고 본다.
 지금 경남영화는 새로운 혁명을 꿈꾸고 있다. 기대하시라!

난리굿패 어처구니의 아주 특별한 만남



메세나 아주 특별한 만남

메세나, 아주 특별한 만남하면 어떤 것이 떠오를까?
메세나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들의 머리 속에
동시에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삼원테크와
난리굿패 어처구니와의 운명적(?) 만남이라고 한다.

삼원테크 이성룡 부사장은 난리굿패 어처구니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항상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삼원테크 제품
카드로그도 한국적인 정서를 담은 표지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 내놨는데 반응이 예상 외로 좋았습니다.
문화예술단체와의 결연사업을 생각했을 때도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문화단체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 난리굿패 어처구니와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닥을 치니 희망이 보인다

‘난리굿패 어처구니’ 손동현 대표는 우리 전통문화가 좋고, 우리 가락이 좋아 무작정 단체를 만들고 활동을 시작했다. 2005년 창단한 후 그럭저럭 모임을 이끌어 갔지만 2009년 가을 공연을 앞두고 미로 속을 헤매는 듯한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다. 출구가 없는 답답한 미로속에 갇힌 듯 어떤 돌파구도 찾을 수 없었다. 더 이상 내려 갈 때가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뒤 ‘이제 다 포기하자’는 생각으로 마음을 접으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런데 그때 메세나협의회로부터 연락이 왔다. 삼원테크라는 회사가 난리굿패 어처구니에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주겠다고 한단다. 그렇게 나가는 길을 찾지 못해 헤맬 때는 보이지 않던 출구가 드디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한 가족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서다

한 가족으로 인연을 맺어서 일까? 삼원테크와 난리굿패 어처구니는 똑같이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 삼원테크는 지난 해 풍력발전기 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최근 발생한 일본 원전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삼원테크의 발걸음도 더 바빠지고 있다.

난리굿패 어처구니 역시 문화두레 어처구니로 이름을 바꾸고 마을 기업으로 새롭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갈 야심찬 계획을 찬찬히 실행에 옮기고 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공동체의 향토·문화·자연 등 특화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의 비즈니스로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

어처구니는 2011년 창원을 대표하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어 창원의 집을 활용한 창원오광대의 전승·공연 사업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힘쓰고 있다.

믿음이 있어 아름다운 동행

기업과 예술단체가 함께 가는 데 있어 서로간의 믿음이 쌓이지 않으면 뼈저덕 소리가 나게 마련이다. 특별한 만남을 소중히 인연으로 이어가며 서로의 발전에 힘이 되어주는 난리굿패 어처구니와 삼원테크! 끈끈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야말로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동행, 메세나가 추구해야할 모습이 아닐까.



현대미술 쉽게 읽기 장정렬_경남도립미술관 학예연구사

미술관을 찾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그림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은 '이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특히,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하지 않는 미술작품 앞에 섰을 때 관람객은 당혹스러움을 느낀다. 평소에 '그림'이라고 생각하던 풍경이나 인물, 정물 등 구상적 형태를 지니고 있는 그림과 달리 '읽을거리'를 순간적으로 찾아내지 못해서 일 것이다. 더군다나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주도했던 추상작품일 경우나, 다양한 실험적 모색을 드러내는 전위적인 작품일 경우에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여야 할지 난감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 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지침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



오늘날 미술의 범위와 형태는 행위예술, 설치미술, 영상 미디어 등으로 확장되어 있으며 이러한 다양한 매체와 표현방법들은 우리로 하여금 현대미술이 난해하다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요인들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술이란 특정계층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견까지 갖게 한다. 하지만, 현대미술에서의 표현의 메커니즘과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적·역사적인 요소와 사회적 요인들을 파악한다면 그리 난해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미술을 이해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정신적 요소들을 함께 이해하는 것이다. 미술은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고 해석하고 새롭게 읽어내는 방식을 각 시대와 문화에 맞게 개발함으로써 인간의 정신세계를 발전시켜 왔던 것이다. 미술의 근본적인 역할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렇게 본다면 ‘미술의 위기’를 말하는 우리 시대가 말로 미술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라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미술 역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동시대 미술품이다. 그들의 작품이 혼돈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 사회와 시대가 혼란스럽기 때문은 아닐까!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보고 즐기기 위하여 많은 것을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물론 미술사에서의 작품의 변천 과정이나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형원리 등을 알면 더 많이 즐길 수 있겠지만, 간단한 몇 가지 방법으로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 마음의 자세이다. 하나의 작품 앞에 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것이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혹 필자는 미술작품의 감상에 관한 관람객의 질문에 독서와 비교해서 설명하곤 한다. 우리가 책읽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것과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하는 것과는 많은 유사성이 있다. 우리는 정해진 독서법만으로 책읽기의 즐거움을 느끼진 않는다. 정독과 속독, 다독과 편독, 소리 내어 읽는 음독과 속으로 읽는 묵독, 그리고 때때로 탐독과 발췌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서법을 총동원하여 책을 읽기 때문이다. 정독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을 새겨 가며 자세히 읽음”이고 속독의 의미는 말 그대로 “빠른 속도로 읽음”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읽는다’와 ‘보다’는 둘 다 시각적인 작용임에는 같지만, ‘읽는다’란 것에는 생각하기와 이해하기의 과정이 포함된다고 했다. 즉, 사고력과 관련된 시각작용이 ‘읽는다’의 개념이고 이것은 그냥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작용이다. 글을 읽고 핵심을 파악하고 한두 줄로 요약하는 능력, 두 글을 비교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는 능력, 앞과 뒷글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가를 파악하는 능력 등이 독서에서 요구된다. 미술작품의 감상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독서의 방법을 적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세계를 얻을 수 있듯이 미술읽기 역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그림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그림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우선 있어야 할 것이며 시간이 주어지는 한 정독을 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그림 앞에 서서 보이는 사실 그대로를 읽어 보자. 형태와 색깔은 어떤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주제는 무엇인지, 화면을 통하여 작가는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등을 살펴보자. 그런 후에는 반드시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한다. 미술을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훌륭한 지침은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이다.

인쇄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미술은 도판과 실제 작품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질이 좋은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는 것과 좋은 화집으로 ‘모나리자’를 감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술작품은 재료와 표면의 느낌, 크기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이 드는데,

화집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시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미술관에서는 기획의도에 따라 작품배치와 조명에 신경을 써서 작품을 공간 속에 배치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미술관을 찾는 즐거운 습관을 몸에 배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시장을 찾는 것이 좋다. 혼자여도 좋지만, 가까운 친구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와 함께 가는 것도 좋다. 서로의 느낌을 교환하고 한 작품을 나란히 마주 대하고 서서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이야기는 구체적인 것이 좋다. 이 작품이 왜 마음에 드는지, 무엇이 눈길을 사로잡았는지 등을 이야기함으로써 스쳐 지나가면 놓쳐 버렸을 그 무언가를 찾을 수도 있고, 눈에 띄지 않았던 요소들을 발견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독서모임과 같은 미술모임을 만들어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으로만 느꼈던 것을 말로써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감상자의 마음과 정신을 자극한 외부의 시각적 요소들을 자신만의 감성과 논리로써 푸는 일이 되고, 이것이 바로 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미술관에 갈 때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전시정보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 안내책자나 도록을 참고하는 것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전시 오픈식과 같은 '작가와와의 만남'의 기회가 있다면 꼭 참석하여 작가로부터 직접 작품의 제작 동기와 제작 과정을 들어보는 것도 좋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직접 질문을 던져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형태와 색상을 기본으로 하는 회화의 이미지를 읽어내는 것을 미술의 핵심이라고 보다면 이미지가 폭주하는 바로 이 시대가 그것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눈이 닿는 곳을 살펴보면 어디에나 미술은 있다. 텔레비전, 비디오, 영화, 만화, 광고, 사진, 도시 공간 등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든 것들이 미술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형태와 색상, 즉 외형적인 디자인과 자신과의 어울림 등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도 모르게 미술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미술작품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화가는 선택한 주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크기, 형태, 구도, 색상, 비례, 조화 등의 조형요소들을 주관적인 감성으로 드러낸다. 이들 조형요소는 모두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고 있으며, 미술작품 감상에 익숙한 사람은 그만큼 생활에서 조화를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미술문화를 체험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 미술작품의 감상과 이해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의 형성에 도움이 되는 것 이외에도 읽는 것이 곧 힘이 된다. 많이 읽는 자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공자가 주역을 즐겨 읽어 책의 가죽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는 뜻으로 '위편삼절(韋編三絕)'이라는 말이 있다. 미술은 시각예술이다. 결국, 아는 만큼 보인다고는 하지만 보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것이 미술품이다. 따라서 미술작품을 읽는다는 것은 이런 자극들에 반응하며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느낌을 얻고 자연스럽게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 정신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많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술관 등을 자주 찾아 '현대미술 읽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작품 하나하나로부터 자신만의 감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의 유형과 감상의 방법이 어느덧 자리 잡고 있음을 느낄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이다. 하나의 작품 앞에 선다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닌 또 다른 자아를 만나는 것이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이다.”



Mecenat Together

경남메세나 회원사들의 새로운
만남의 현장 소식과
음악·연극·뮤지컬·전시 등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행사들을 소개합니다.

2011 **경남메세나협의회** 신규결연팀 소개

지난 6월 23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경남메세나협의회 2011 상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결연을 맺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자리이기에 무엇보다 소중한 행사다. 올 상반기 결연팀은 총 36개 팀으로 지난해 상반기 결연팀보다 10개팀이 늘어났다.

- **경남은행 / 은행장 박영빈**
- **가산오광대보존회 / 회장 한우성**
- **통영국제음악제 / 이사장 이흥구**

올해로 창립 41주년을 맞은 **경남은행**은 대한민국 대표 지방은행으로, 지역민에 대한 금융편의 제공과 지역금융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은행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가산오광대보존회는 사천시 축동면 가산리에서 전수되어온 300년 역사의 오광대 탈놀이로서 국가중요문화재 제73호로 지정된 우리 전통 문화유산의 진수이다.

통영국제음악제는 2002년 윤이상의 음악세계를 기리고 한국현대음악의 발전에 일조하고자 시작된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최기관으로 아시아 최고의 음악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 **STX조선해양(주) / 대표이사 신상호**
-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 이사장 정태기**
- **대산미술관 / 관장 김철수**

STX조선해양은 국내 대표 조선해양 기업으로, 글로벌 탑 해양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해오면서 지역 내에서 다양한 분야의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국내 최정상급 민간교향악단을 지향하며 열정적인 연주자들이 뜻을 모아 설립한 단체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자선음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수준 높은 지역 민간교향악단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대산미술관은 창원 대산에서 1999년 개관하여 지금까지 71회의 기획전시회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소외된 농촌지역에 문화의 씨를 뿌리며 지역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 **경남에너지(주) / 대표이사 정연욱** ◉ **극단 객석과 무대 / 대표 문종근**

경남에너지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고객과 함께 하는 기업”을 경영이념으로 지역 문화예술 지원과 나눔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극단 객석과 무대**는 소극장을 활용한 장기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남 연극 공연사에 새로운 가치를 확립해 왔으며, 최근에는 지역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을 개발하여 관객과의 창의적 소통을 준비하고 있다.



◉ **금슬개발(주) / 대표이사 윤정환** ◉ **문영화규젤퍼포먼스공연단 / 단장 문영화**

금슬개발은 김해지역에서 조경수목 및 조경시설물 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창업 후 13년 동안 내실위주의 경영방침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다.

문영화규젤퍼포먼스공연단은 발리댄스의 아름다움과 예술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문화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만들어진 단체로, 다소 생소한 발리댄스를 테마와 감동이 있는 공연예술로 승화시켜 지역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 **(주)성우 / 대표이사 이상길** ◉ **창원합창연합회 / 회장 권안나**

성우는 1988년에 창업한 공작기계 전문 기업으로, 독자적인 설계 및 기술개발을 통해 공작기계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해오고 있는 지역 우량기업이다.

창원합창연합회는 지역내 합창음악문화를 선도하고 합창음악회 개최 등을 통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합창문화 분위기 조성과 도내 합창단 간의 유대강화 및 교류로 지역 합창음악의 수준향상을 꾀하고 있는 단체이다.



◉ **에코시스템(주) / 대표이사 정찬희** ◉ **경남프리미엄앙상블 / 대표 조미숙**

에코시스템은 환경산업 전문기업으로, 탁월한 경영 기법으로 협력업체들간의 거래 건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역내 관련 산업 전반에 경영기반을 공고히 해 오고 있는 기업이다.

경남프리미엄앙상블은 2002년에 창단된 여성중창단으로, 여성들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 지역민들이 음악에 더욱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단체이다.





● **인산죽염촌(주) / 대표이사 최은아** ● **경남시인협회 / 회장 강희근**

인산죽염촌은 인산 김일훈 선생이 발명한 죽염을 이용한 자연 친화적인 건강식품 상품화와 선생이 남긴 저술들의 연구, 발간 사업을 영위중인 중소기업으로, 매년 함양 상림에서 인산가곡제 개최 등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시인협회는 경남도내 시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한국시인협회 산하단체가 아닌 독자적인 시인단체로 출발하여 차별화된 성격의 지역담론을 개발해 나가고 있는 단체이다.

● **영민테크 / 대표 김민호** ● **김해신포니에타 / 단장 이건덕**

영민테크는 김해 진영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 중인 제조업체로, 2002년 설립하여 차별화된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꾸준한 경영활동을 해오고 있다.

김해신포니에타는 김해지역에서 2002년 창단된 전문실내악단으로, 투명하고 절제된 음색으로 경남의 대표적인 실내악단으로 성장해 오고 있다.



● **일림나노텍(주) / 대표이사 박효찬** ● **경남관악단 / 단장 김정호**

일림나노텍은 금속절삭기공기계 제조업으로 1985년 설립하여 법인전환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이다.

경남관악단은 지역의 관악인들이 지역 관악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창단한 단체로, 지역 관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 **(주)정문애드테크 / 대표이사 윤수일** ● **거제예총 / 회장 박영숙**

정문애드테크는 2004년 창립한 산업디자인, 기획편집, 브랜드개발, 인쇄 등을 주력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경쟁이 극심한 동업계에서 내실 경영으로 건실한 업황 유지해 오고 있다.

거제예총은 지역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문학, 연극, 미술, 음악, 사진, 국악, 무용, 연예예술 등 8개 예술분야를 회원단체로 하여 운영 중인 한국예총 경남도 연합회 산하 지회이다.





지난 6월 23일 창원인터내셔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경남메세나협의회 '2011 상반기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 이 열렸다.

올 상반기 결연팀은 총 36개 팀으로 지난해 상반기 결연팀보다 10개팀이 늘어났다. 그 만큼 우리 지역 기업들의 메세나활동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결연식은 국내 미술시장을 이끌어 오고 있는 김순웅 아트컴퍼니 대표의 '미술품 투자와 경매'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박영빈 경남메세나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경남의 문화예술발전과 지역내 기업들이 문화경영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고 소감을 밝혔다. 그리고 경상남도를 대표해 행사에 참여한 김이수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메세나 활동으로 문화경남의 이미지를 높여준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에 감사드리며 경상남도도 메세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는 축사를 전했다. 그리고 함께 참석한 고영진 경상남도교육감은 “내년이면 경남교육재단이 새롭게 활동을 시작한다. 경남교육재단을 통해 메세나 꿈나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며 축사를 이어갔다. 축사에 이어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이 진행됐다. 먼저 올해 신규로 결연을 맺은 12개팀이 결연약정서에 서명하고 청색과 홍색 머플러를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리고 다시 결연을 맺은 24개팀이 청·홍색 머플러를 교환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다짐했다. 행사는 올해 신규 결연을 맺은 김해신포니에타의 현악 12중주 연주와 경남프리미앙상블의 중창 공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참석하러 왔던 일부 사람들이 돌아갈 정도로 이번 결연식에 대한 회원사와 문화예술단체의 관심이 높았다. 오늘의 뜨거운 관심이 경남메세나협회의 내실과 번영으로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결연식 스케치



사랑을 전하는 즐거운 나눔티켓

예술의 희망이야기

경남메세나협회는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이날 브레히트 극장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더욱 멀리 퍼뜨려나갈 것이다.



“생전 처음 보는 뮤지컬이 주는 감동
오랫동안 잊지 못할 거예요”

지난 2월 24일 밀양시 북북면 밀양연극촌 ‘브레이트’ 극장 앞이 왁자지껄했다. 밀양지역 11개 아동센터 아이들이 특별한 경험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진정 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경남메세나협의회에서 문화 나눔 사업의 하나로 진행하는 ‘즐거운 나눔티켓’ 이 이번에는 밀양지역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줬다. 지난 해 10월 마산지역 아동센터 아동 150여명이 3.15아트센터에서 뮤지컬 ‘알라딘’을 보고난 뒤 밀양지역아동센터에서 나눔티켓을 받고 싶다는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어떤 공연으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까 고민하던 차에 때마침 밀양연극촌에서 어린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공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더구나 지역에서 어린이 연극단체를 보는 게 흔치 않은데 ‘오즈의 마법사’는 ‘반달’이라는 밀양지역 어린이 연극단체가 공연을 한다. 무엇보다 자기 친구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여기서 잠깐 ‘극단 반달’을 소개하자면 밀양의 어린이, 학부모, 밀양연극촌 배우들이 만든 것으로 일체의 외부 지원 없이 연극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연극 단체다. 특히 지난해 김천전국가족연극제 자유 경연에 참가해 전문 극단들을 제치고 대상을 수상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극단 반달’이 무대에 올린 ‘오즈의 마법사’는 도로시가 친구들과 신비한 모험을 떠난다는 원작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현대를 배경으로 삼고 우리 전래동화를 곳곳에 각색해 넣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색다른 작품으로 탄생했다. 여기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와 신나는 노래와 율동을 곁들인 뮤지컬로 꾸며 웃음과 감동을 두 배로 전해주는 공연이었다.

“뮤지컬을 바로 앞에서 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보통 집에 있으면 인터넷이나 하고 있었을텐데. 이렇게 바람도 쐬고 친구들이 하는 공연을 볼 수 있어 진짜 좋았어요”

공연을 보고 난 뒤 200여명의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언제 다시 공연을 보냐고 다그쳐 선생님을 난처하게 만드는 모습이 마냥 보기 좋았다.

경남메세나협의회는 평소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 어린이들에게 우수한 공연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여, 이날 브레이트 극장에서 울려 퍼진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더욱 멀리 퍼뜨려나갈 것이다.



“선생님,
우리 또 언제 뮤지컬 보러 와요?”





경남메세나와 함께하는 문화산책 Mecenat in Culture Preview

● 시원한 계곡 바람 속에서 즐기는 이색 휴가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 테마여행 <맛있는 연극>

페스티벌 테마여행 '맛있는 연극'은 청정 거창의 맛있는 먹거리와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에서 펼쳐지는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야외연극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한 오감만족 테마여행이다.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는 7월 29일부터 8월 13일까지 '연극이 내게로 온다'는 주제로 8개국 34개팀이 참여한다.

코스1. 우리가족의 와인 체험 - 진토와인

첫 번째 코스인 아이스와인 체험은 국내 최초의 아이스와인 공장인 진토와인에서 아이스와인 시음은 물론 온 가족이 직접 와인을 담가볼 수 있는 코스로, 온 가족이 모여앉아 지난 여름 휴가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

코스2. 거창의 명품한우로 점심을- 애우

달콤한 와인 향기에 충분히 취했다면 이제 거창의 명품한우를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점심 시간이다. 거창군에서 청정지역을 선정하여 정성껏 기른 거창의 대표 먹거리 애우를 부위별로 다양하게 맛 볼 수 있다.

코스3. 계곡에서 즐기는 시원한 물놀이 - 수승대

연극제가 열리는 수승대는 예로부터 덕유산 자락에서 내려오는 시원하고 깨끗한 계곡물과 수려한 풍경으로 유명하다. 계곡물에 몸을 담그고 공연을 보는 거창국제연극제의 명소, 무지개 극장의 아름답고 환상적인 해외팀 공연은 어디에서도 즐길 수 없는 거창국제연극제만의 특별한 축제 현장이다.

코스4. 자연산 산채로 차려진 맛깔나는 저녁상 - 돌담사이로

물놀이와 공연을 보면서 망중한을 즐겼다면 이제 농촌진흥청과 거창군이 인정한 농가 맛집 '돌담 사이로'에 가서 덕유산 자락에서 나는 산채를 하루하루 정해진 양만을 조물조물 무쳐내는 맛깔 나는 상차림을 만나보자.

코스5. 국내외 대표적인 연극작품을 한눈에! -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

올해 거창국제연극제에서는 국내외 수준높고 다양한 장르의 연극들을 신나게 즐길 수 있다. 2011년 에딘버러페스티벌 공식초청작인 극단 목화의 '태풍을 비 롯해, 대학로를 평정한 극단 여행자의 '마릴린 먼로의 삶과 죽음', 창단 25주년을 맞은 연희단거리패가 펼치는 이색 뮤지컬 '천국과 지옥' 등 예술성 넘치는 수준 높은 연극들에서부터 신명나는 뮤지컬 및 타악퍼포먼스와 악극, 마당극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공연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제23회 거창국제연극제 테마여행 '맛있는 연극'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장소
1		집결, 인원 확인, 출발	출발지역 (창원, 진주, 대구)
2	10:00	거창읍 도착	
3	10:30 ~ 12:30	진토 와인 체험	거창군 정장리
4	12:30 ~ 13:30	점심식사	거창군 한우팰리스
5	14:00 ~ 18:00	물놀이, 휴식	거창군 수승대
6	18:30 ~ 19:30	한옥마을 저녁 식사	거창군 위천면 황산마을
7	20:00 ~ 22:00	연극관람	거창군 수승대
8	22:00~	귀가	

김정은 거창국제연극제 마케팅팀장 *문의 943-4152~3 www.kif.or.kr

● ‘염쟁이 유씨’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다

- 대한민국 대표 연극! 모노드라마의 새 역사를 쓴 명품 연극!!

〈염쟁이 유씨〉는 죽음을 통해서 삶을 바라보고자 하는 연극이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는 유씨라는 염쟁이의 경험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의 해답을 찾고자 한다. 죽음이 생명을 마감할 수는 있어도, 살면서 만들어 놓은 관계를 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되새길 때, 우리는 스스로의 삶에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죽음이 자신에게도 언젠가는 닥칠 것임을 긍정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소극장 관람객 18만 명 기록을 세운 대한민국 대표 연극 〈염쟁이 유씨〉에는 유씨를 비롯하여 조직폭력단의 우두머리와 부하들, 유 씨의 아버지와 아들, 기자, 어떤 부자와 그의 아들들, 며느리, 막내딸 등 15 명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사람들을 배우 한 사람이 표현한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 갖가지 형태의 죽음이 재기발랄한 대사로 파노라마 형식으로 펼쳐짐으로써 한바탕 웃고 나면, 삶이 더욱 즐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한다.

“죽는 것 어려워들 마시게.. 산다는 것 누군가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 염쟁이 유씨의 마지막 대사다.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쟁취하면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웃음과 해학으로 무대의 막이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 관객을 숨죽이게 만드는 연극 “염쟁이 유씨”다. 1인극의 진수를 느끼고 싶다면 가족이나 연인의 손을 꼭 붙잡고 7월 16일(토) 오후3시, 7시 공연이 개최되는 거제문화예술회관 소극장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지

김정희 거제문화예술회관 마케팅팀장 *문의 680-1000 www.geojeart.or.kr



● 푸치니 최고의 걸작 〈투란도트〉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은 경남오페라단이 선보이는 작품은 푸치니 최고의 걸작 〈투란도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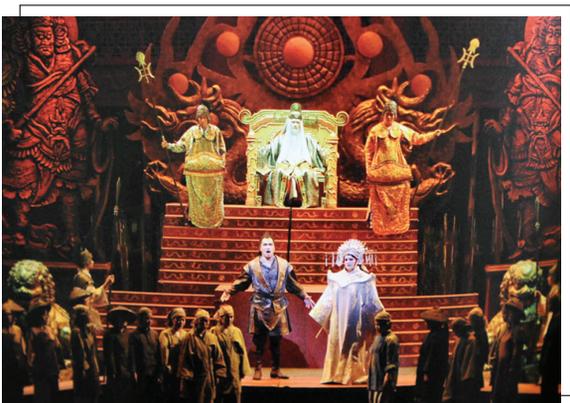
중국 전설시대 자금성을 배경으로 투란도트 공주와 칼라프 왕자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투란도트〉는 ‘공주는 잠 못 들고’, ‘들어보세요, 왕자님’ 등 유명한 아리아로도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이태리출신 ‘마르코 푸치 카테나’의 연출과 ‘안드레아 카펠레리’의 지휘로 창원시립 마산교향악단, 창원시립 마산합창단, 창원시립 진해합창단, 춤서리 무용단 등 지역예술단이 함께하는 무대로 이태리 정통 오페라의 진수를 선보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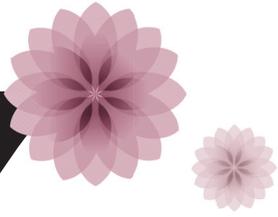
경남오페라단은 이번 〈투란도트〉 공연에 대해 ‘전설 속의 중국’이라는 몽환적인 분위기와 장대한 스케일로, 아름답고 볼거리가 풍부한 작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10월 27일부터 3일간 성산아트홀 대극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전나는 경남오페라단 기획실장 *문의 266-5580 www.knopera.co.kr



JULY



경남메세나가 전하는 공연·전시 소식
Mecenat in Culture **Calendar**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2011 / JULY		
2011 세시봉 친구들	경남문화예술회관	7월 1일~2일
안치환&정호승의 <시, 노래 콘서트>	성산아트홀	7월 2일
어린이 뮤지컬 신데렐라	315아트센터	7월 2일~3일
제21회 진주청년작가회 정기전	경남문화예술회관	7월 2일~8일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피아노 연주회>	성산아트홀	7월 5일
체임버앙상블 꼬나-니꼬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7월 5일
트루바의 <오페라, 팡페라, 풍페라>	성산아트홀	7월 6일
풍류피아니스트 임동창의 <1300년의 사랑이야기 - 달하>	경남문화예술회관	7월 7일
무용극 <서동요>	315아트센터	7월 9일
연극 <민들레 바람되어>	경남문화예술회관	7월 9일~10일
뮤지컬 <김종욱 찾기>	함안문화예술회관	7월 9일
늑대와 꼬마돼지 삼형제	성산아트홀	7월 9일~10일
제51회 모닝콘서트 - 열정의 소나타	성산아트홀	7월 12일
경남팝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7월 12일
창원시립교향악단 제112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7월 14일
낭독과 음악, 그리고 영상이 있는 허아람의 <꿈꾸는 책방 낭독회>	315아트센터	7월 15일
성산미술대전 개막식	성산아트홀	7월 16일
매직블록버스터 <이은결의 더 일루션>	315아트센터	7월 16일~17일
연극 <염쟁이 유씨>	거제문화예술회관	7월 16일
뮤지컬 <싱글즈>	김해문화의 전당	7월 16일~17일
신포니아 제47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7월 19일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145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7월 19일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단 합창 페스티벌	성산아트홀	7월 22일~23일
국립합창단 공연	양산문화예술회관	7월 29일
개그맨 안상태의 코미디 1인극 <상태좋아>	315아트센터	7월 30일
제15회 창원야철 전국 국악대전	성산아트홀	7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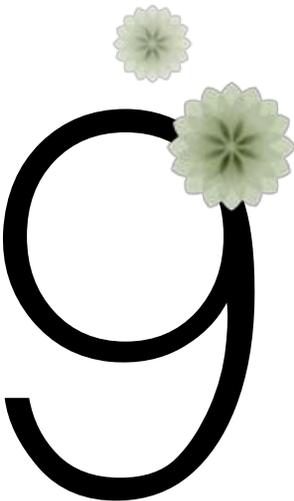


AUGUST



2011 / AUGUST

한·중 청소년 교류 음악회	성산아트홀	8월 9일
창원시립마산예술단 광복절 음악회	315아트센터	8월 12일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146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8월 12일
광복 66주년 기념음악회	성산아트홀	8월 14일
해설이 있는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	성산아트홀	8월 20일
뮤지컬 <싱글즈>	양산문화예술회관	8월 20일
연극 <전흥전 평전>	성산아트홀	8월 20일
사당청산유수예술원 <타, 그리고 몸짓>	성산아트홀	8월 21일
창원시민화 함께하는 연극 <돼지사냥>	성산아트홀	8월 26일~28일
뮤지컬 <모차르트>	성산아트홀	8월 27일~28일
경남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8월 30일
뮤지컬 <뮤즈의 부활>	315아트센터	8월 25일~27일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146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8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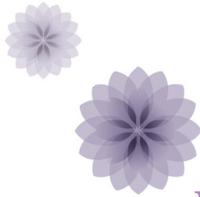


SEPT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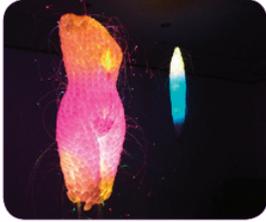
2011 / SEPTEMBER

복있는 사람들 제9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9월 1일
창원큰들 정기공연	성산아트홀	9월 2일
진주유스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경남문화예술회관	9월 3일
어린이 캐릭터 뮤지컬 <책먹는 여우>	성산아트홀	9월 3일~4일
제52회 모닝콘서트	성산아트홀	9월 6일
정명훈과 7인의 음악인들	경남문화예술회관	9월 6일
2011마산국제춤축제	315아트센터	9월 7일~8일
최안과의원과 함께 하는 음악회 <월드 비트 비나라>	성산아트홀	9월 8일
창원시립마산합창단 60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9월 8일
경남야방가르드양상블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9월 9일
배정인 피아노 독주회	315아트센터	9월 9일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315아트센터	9월 10일
경남프리모양상블 제11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9월 15일
국악관현악 <악 가 무>	성산아트홀	9월 16일
VIVA CELLO 양상블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9월 17일
창원시립합창단 제59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9월 22일
창원시립마산교향악단 147회 정기연주회	315아트센터	9월 22일
연극 <용띠 위에 개띠>	315아트센터	9월 22일~25일
어린이 뮤지컬 <뽀로로의 대모험>	성산아트홀	9월 24일~25일
라틴아메리칸댄스공연	성산아트홀	9월 25일
김계옥 피아노 독주회	315아트센터	9월 27일
통합 창원시 기념 여성합창제	성산아트홀	9월 27일
경남오페라단 창단20주년기념 해설이 있는 갈라콘서트	성산아트홀	9월 29일
오페라 <현명한 여인>	성산아트홀	9월 29일~30일
창원시립교향악단 제113회 정기연주회	성산아트홀	8월 30일





EXHIBITION



2011 / EXHIBITION

라이트 아트의 신비로운 세계 경남도립미술관 6월 9일~8월 28일

↳ 빛의 공간 창출에서부터 영상의 빛 사용, 형상에 비춰진 빛과 그림자 등 '라이트 아트'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아이들을 포함한 일반인들에게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해보고자 한다.



찾아가는 도립미술관 <웨민준 특별전> 도립미술관 6월 15일~7월 11일

↳ 중국 현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 웨민준 특별전을 통해 중국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작가 자신의 풍자와 탄핵, 집단화에 대한 거부의 몸짓으로 웃음의 역할을 보여준다.

꿈의대화, 스마트아트전 315아트센터 7월 15일~9월 4일

↳ 로봇아트 및 인터랙티브·팝아트를 매개로 다양한 소재와 표현을 이요하여 움직이는 조각 또는 재미있는 회화는 물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해야 즐길 수 있는 영상화 테크놀로지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는 전시

2011 문자문명전 성산아트홀 9월 6일~11일

↳ 다호리 고분에서 출토된 붓을 기념하여 현대문자예술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서예술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모색코자 하는 전시



생각하는 집, 꿈꾸는 정원 김해클레이아크미술관 9월 30일~2월 26일

↳ 도예, 건축, 사진, 설치 및 평면작가 15명 내외의 25여 점으로 꾸며지는 이번 특별전은 인간 삶의 바탕이 되는 집과 정원에 대한 창의적인 공간 창출의 가능성을 제시함으로써 주거 공간으로서의 집에 대한 사유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경남메세나 10호에 대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세분께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참여기간 : 2011. 7. 28 까지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gnmecenat.or.kr) [정부가 있는 공간] ▶

[메세나지] ▶ [소감문 남기기] 이메일(gnmecenat@gnmecenat.or.kr)

- ❶ 이번호를 읽고 난 후 느낌이나 소감을 적어주세요.
- ❷ 이번호에서 가장 유익했던 칼럼 3개를 적어주세요.
- ❸ 다음호에 추천하고 싶은 칼럼의 주제를 적어주세요.

독자의 생각

김정아(자영업) 창원시 해운동 거주

◀ 소감

천상병 시인의 삶과 작품세계, 우리 전통 가곡에 대한 친절한 해설, 클래식 공연장에서 에티켓 등 흥미롭고 유익한 칼럼들이 많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 유익칼럼 3가지

1. 예술과 삶 2. CEO in Mecenat
3. 아름다운 우리노래, 가곡

◀ 다음호 추천주제

앞으로도 경남의 예술을 조명한 칼럼들을 계속 연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이나 외국의 메세나 사례들도 다양하게 실어주시면 문화마케팅 기획 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경남은행) 창원시 팔용동 거주

◀ 소감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문화예술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 유익하고 좋았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해나갈 생각이다.

◀ 유익칼럼 3가지

1. 클래식 쉽게 즐기기 2. 스토리가 있는 문화
3. 메세나 갤러리

◀ 다음호 추천주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가 더 많이 소개되었으면 한다.

장준혁(에이젠) 창원시 대원동 거주

◀ 소감

예술은 삶의 양념이다~! 메세나지를 읽으니 예술, 특히 경남의 예술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앞으로도 메세나지에서 좀더 친숙하고, 편하게 다가갈수 있는 예술을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 유익칼럼 3가지

1. 경남메세나상 대상 수상자 인터뷰 2. 예술과 삶
3. 2010 경남메세나상 수상자들 인터뷰

◀ 다음호 추천주제

경남 각 지역의 문화예술회관들을 소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라도 주말에 나들이 삼아 가족과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갈 수도 있으니깐요.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경남스틸이 함께합니다.

가치 있는 기업, 정보화로 무장된 기업, 존경받는 기업,
무한 경쟁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기업,
무엇보다 사회와 이웃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
경남스틸의 다짐입니다.

Cover story

하얀추억_ 임재섭작

"누구나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고 포근한
고향의 느낌을 캔버스에 담았다. 음악을 즐기는 데
전문지식이 중요하지 않듯 울타리 없는 감수성과
상상력으로 바라보고 느꼈으면 한다."

'2011 경남불교미술인협회전' 출품작으로, 경남불교
미술인협회는 창원시불교연합회와 경남불교 신도회가
후원하는 단체로서 2007년 창립 이후 매년 정기회
원전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전' 등을 개최 하며
작품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